

安平大君 李瑢의 文藝活動과 書藝*

이 완 우**

- I. 머리말
- II. 李瑢의 生涯
- III. 李瑢의 文藝活動
- IV. 李瑢의 書藝
- V. 李瑢 書藝의 評價

I. 머리말

安平大君 李瑢(1418-1453)은 조선 초기 15세기 전반의 명필로 예술에 대한 자질을 타고났고, 또 王子로서 최고의 환경에서 詩·書·畫 등 고급문예에 심취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元 松雪道人 趙孟頫(1254-1322)의 글씨를 깊이 체득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켜 조선 전기 松雪體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이용의 생애와 예술 활동의 개략이 소개된 바 있다.¹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03-G0001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¹ 安輝濬·李炳漢 著, 『安瑢과 〈夢遊桃源圖〉』(圖書出版 藝耕, 1993), pp.34-51.

본 고에서는 이용의 生涯에 관한 몇몇 사항과 그가 행한 佛事·詩文·書畫 분야에서의 活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古代名蹟의 收藏과 古代法書의 간행을 통해 당대 서화에 미친 영향과 이용의 墨蹟과 摹刻 글씨에 보이는 서풍적 특징 및 여러 傳稱作을 언급하겠다. 나아가 그를 가장 빛내준 글씨가 당대와 후대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II. 李瑑의 生涯

1. 生涯

이용은 世宗大王(1397-1450)과 昭憲王后(1395-1446) 사이의 여덟 왕자 文宗, 首陽大君(世祖), 安平大君, 臨瀛大君, 廣平大君, 錦城大君, 平原大君, 永膺大君 중 셋째로 1418년(세종 즉위) 9월 19일 출생했다. 1428년 6월 16일 大匡輔國安平大君에 봉해졌고 이듬해 1월 20일 左副代言 鄭淵(1389-1444)의 따님(?-1453. 4. 23)과 혼인했다. 1430년 5월 17일 旻平(수양)·臨瀛大君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했고, 1438년 3월 旻陽(수양)·臨瀛·廣平大君과 함께 함길도 네 곳에 신설된 鎭(경원, 회령, 경흥, 종성)의 각 고을을 총괄했으며 당시 이용은 會寧을 맡았다.

이용의 성품에 대해서는 왕조실록에 적혀 있으나 수양대군 측의 시각이 더해졌을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용과 교류했던 인물이나 가까운 시대의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朴彭年의 『匪懈堂記』, 李塏의 『武夷精舍記』를 비롯하여 徐居正(1420-1488)의 『筆苑雜記』, 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 曹伸의 『謏聞瑣錄』, 金安老(1481-1537)의 『龍泉談寂記』 등의 기록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이용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을 잘했으며, 서화에 뛰어나 특히 글씨로써 당대 최고였고 음률과 바둑 등의 잡기도 두루 잘했다. 또 매 사육에도 관심을 두었던 듯 1444년에는 『鷹鵠方』을 짓기까지 하였다.² 식견과 도량이 넓어 당시 명사로서 그와 교제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잡업에 종사하

² 李佑成 編, 『古本 鷹鵠方 外 二種』 樓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 24(亞細亞文化社, 1990) 참조. 『응골방』은 東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의 후대 轉寫本으로 서문 끝에 “正統甲子臘月暇日 書于匪懈堂之梅竹軒”이라 적혀있다. 編目은 教鷹體名 劑藥法 劑藥法 吐鷹調習法 新鷹放教法 瘦鷹上肌法 作食法 坐鷹處法 相鷹安否法 聞見經驗方 鷹賦이다.

는 이들과 그를 따랐다고 한다. 반면 들뜬(浮誕) 성격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호방한 행동 등 상이한 평가도 전해진다.

또 옛것을 좋아하고 探勝을 즐기며 호사스런 생활을 했다. 그는 비해당에 온갖 진기한花木을 심고 진귀한 동물을 키우며 泉石의 즐거움을 누렸고, 南池 밖 龍山江 가에 淡淡亭을 지어 知人들과 모임을 즐겼다.³ 또 1451년 가을에는 지난 1447년 4월 桃源을 꿈꾼 곳과 방불한 장소를 도성 북문 밖에서 찾아 武溪精舍를 지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29-4번지 일대(유형문화재 제22호)로 이곳을 隱棲處로 삼아 그는 문사들과 학문과 예술로 교제했고 측근들과 心契를 맺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다고 여겨진다. 말년에는 麻浦 별장에서 측근과 지내거나 김종서 또는 誠寧大君(1396-1486) 집에 자주 머물렀다고 전한다.

세종대왕이 사망한 뒤 이용은 훈구대신 皇甫仁(?-1453)·金宗瑞(1390-1453)와 술수에 뛰어난 李賢老 등의 도움을 받아 정치력을 길러 작은형 수양대군의 세력에 맞서는 실력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1453년(단종1) 10월 10일의 癸酉靖難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이 살해되고 그는 江華로 유배되었다. 이튿날 兩司에서 誅殺해야 한다는 청이 있었으나 윤택되지 않았다가 10월 16일 강화 서북쪽 喬桐 섬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鄭麟趾의 再啓로 賜死가 내려졌다. 슬하에 2남 1녀가 있었는데 맏아들 宜春君 李友直은 아버지를 따라 강화로 유배갔다가 뒤에 珍島로 옮겨진 뒤 1454년 8월 사사되었다. 둘째아들 李友諒은 어려 죽었고, 외동딸과 이용의 첩 그리고 이우직의 아내는 계유정난 뒤 外方の 官婢가 된 듯하다.⁴ 17세기 중반부터 종실을 중심으로 復官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치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다가 1747년(영조23) 영의정 金在魯의 상소로 복관되었다. 시호는 章昭이다.⁵

2. 字와 號

이용의 字는 淸之이다. 그 뜻은 [淸越以長]이란 그의 用印으로 짐작되는데, 子貢이 孔子에게 “군자가 玉을 귀하게 여기고 옥돌(緇礪)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왜입니까? 옥은 적고 옥돌은 많아서입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그런 게 아니다. 옛날에 군자가 德을 玉에 비유한

³ 李承召, 『三灘集』 권1, 「淡淡亭十二詠」; 成侃, 『眞逸遺稿』 권2, 「淡淡亭四時」·「淡淡亭四首」.

⁴ 『端宗實錄』 권8, 즉위년 10월 21일 甲辰; 권12, 2년 8월 15일 甲午·9월 9일 丁巳.

⁵ 생애관련 기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연구소, 『標點·校勘 朝鮮王朝實錄』(株榭트릭스, 2004), 족보는 宗正院 編, 『睿源續譜(世宗子孫錄)』, 권1 安平大君派(1902年刊) 참조.

것은 溫潤하여 仁을 윤나게 하고 縝密하여 知를 여물게 하며 清廉하여 義를 상처내지 않아, 이것을 드리우면 禮로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을 두드리면 그 소리가 맑고 드높게 길며(其聲 清越以長) 마침내 樂에 멈추는 듯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禮記』 구절에서 나왔다.⁶ 즉 淸之는 ‘(옥 두드리는 소리로써 德·仁·知·義를) 맑게 하여 (禮·樂에 머문다)’ 라는 뜻으로 새겨진다.

이용의 號는 匪懈堂, 梅竹軒, 琅玕居士 등이다. 먼저 비해당이란 堂號는 세종이 1442년 6월 이용에게 학문과 선행을 권면하고자 지어준 것이다. 그 뜻은 朴彭年(1417-1456)의 「匪懈堂記」에서 “이것은 吉甫가 맨 처음 匪懈의 頌으로 띄내고 橫渠(張載)가 存養의 說을 더한 까닭이니 그 말이 더욱 간절하다. 이는 진실로 聖人 門下의 지극한 공부이며 道를 배우는 사람의 큰 방법이다.”라고 한 구절에서 짐작된다.⁷ 즉 ‘비해’는 『詩經』, 「大雅」편에 나오는 것으로 周 宣王 때 尹吉甫가 仲山甫에게 지어준 「蒸民詩」 8장 가운데 제4장에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오직 한 분(天子)을 섬긴다네(夙夜匪懈 以事一人).”라고 찬송했으며, 北宋 張載(1020-1077)가 「西銘」에서 “집에 물이 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욕됨이 없도록 하며, 마음을 지켜 성품을 기르고 게으르지 않는다(存心養性匪懈).”라고 그 뜻을 넓혀주었다.⁸ 그래서 이용은 [匪懈堂]이란 堂號印과 함께 [存心養性], [存心養性 以事一人]이란 詞句印을 사용한 것이다도1.

梅竹軒이란 軒號는 매화와 대나무의 청아한 志操와 굳센 節操를 추구한다는 뜻일 것이다. <夢遊桃源記> 말미에 “夢後三日圖既成 書于匪懈堂之梅竹軒”이라 쓰여 있어 비해당의 헌 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영조연간(1758-1768)에 간행된 成三問(1418-1456)의 문집 『成謹甫先生集』의 권1 맨 앞에 「梅竹軒賦」가 실리고 권3 부록 「世系」에 성삼문의 호가 매죽헌이라 적히면서⁹ 성삼문의 호로 오인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초에는 아예 그의 문집이 『梅竹軒先

6 『禮記』, 「聘義」, “子貢問於孔子曰 敢問君子貴玉而賤珉者何也. 爲玉之寡而珉之多與. 孔子曰 非爲珉之多故賤之也 玉之寡故貴之也. 夫昔者君子比德於玉焉 溫潤而澤仁也 縝密以栗知也 廉而不瀾義也 垂之如隊禮也 叩之其聲清越以長 其終咄然樂也.”

7 朴彭年, 『朴先生遺稿』, 「匪懈堂記」, “……正統壬戌夏六月有日 安平大君入侍宸闈 上從容問曰 某之堂名云何. 安平對以無. 上誦蒸民之詩 且及西銘曰 宜扁以匪懈. 安平拜手稽首 且喜且驚 遂徵言於禁垣諸儒 以演其旨. 是蓋欲侈上之賜而(缺)勉也. 僕竊聞而歎之曰 大哉王言也 其我國家子孫(缺)之謨訓也……此吉甫所以首發匪懈之頌 而張橫渠又益之以存養之說 則其言又切矣. 是誠聖門之極功 而學道者之大方也.”

8 北宋 張載, 『張先生全書』 권1, 「西銘」, “……不愧屋漏爲無 存心養性爲匪懈.” 이 구절은 南宋 朱熹·呂祖謙 編, 『近思錄』 권2 「爲學」; 熊節 編, 『性理群書句解』 권3 등에도 실려 있다.

도 1

李瑑의 印影

右 : 1443년 <匪懈堂集古帖跋>: [清之], [清越以長],
[存心養性], [匪懈堂安平大君之記]

中 : 1444년 <唐宋八家詩選序>: [存心養性 以事一人],
[安平大君]

左 : 1447년 <夢遊桃源記>: [琅玕], [清越以長]



生文集』으로 간행되어 지금까지 혼돈시키고 있다. 그러나 「매죽헌부」는 성삼문이 자신의 軒號에 대해 지은 게 아니라 이용의 매죽헌을 찬미한 것이다.

琅玕居士란 別號에서 낭간은 '玉 이름', '아름다운 대나무의 異稱', '봉황이 사는 신선 나라의 구슬열매가 달리는 寶樹' 등 여럿인데, 여기서는 옥을 가리킨다. 이용은 비해당의 정

9 『成謹甫集』 권3 附錄, 「世系」, “先生姓成氏 諱三問 字謹甫 號梅竹軒.(梅竹軒賦見文集○權承旨文海所著大東韻玉云 成先生號讀書庵 恐是少時所稱也.) 昌寧人.”

원에 온갖 화초와 수목을 심고 기석을 늘어놓으며 사향노루·금계·집비둘기를 길렀는데, 이를 自贊하는 「匪懈堂四十八詠」을 짓고 여러 집현전 학사들이 이를 次韻하여 시를 지어주었다. 그중 성삼문의 48영 중 제17수 「해남에서 나는 낭간(海南琅玕)」에서 “선왕(世宗)께서 이 물건을 중시하며 은혜로운 하사를 東平(이용을 지칭)에게 하셨네.”라고 했는데,¹⁰ 이것은 『세종실록』 12년(1430)~31년(1449)에 전라감사, 전라도처치사 또는 浦口·島嶼의 船軍들이 7차례 진상한 靑琅玕(白琅玕도 있음)을 가리킨다. 아마 그중 하나를 하사받자 이런 별호를 썼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魚叔權의 『稗官雜記』에 이용의 「비해당사십팔영」 序文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거기에 “琅玕石”이라 하여 낭간이 옥돌임을 말하였다. 이밖에 武夷精舍에 대한 이용의 詩序 말미에 “泉石主人 琅玕居士 淸之書”라고 적혀있어 ‘석천주인’이란 별호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¹¹

III. 李瑿의 文藝活動

이용은 조선 초기 文藝 方面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특히 세종의 깊은 관심을 받으면서 학문과 예술의 바탕을 키워갈 수 있었고, 뒤에 대군으로서 당시의 문예 方面에서 상당한 影響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本章에서는 이용의 문예 활동을 佛事·詩文·書畫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佛事 活動

이용의 불사 활동은 대부분 세종·문종 연간의 왕실 불사와 관련된다. 스스로 불교를 깊이 믿어 高僧들과 널리 교류했으며 佛書 간행이나 寫經 불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문종이

¹⁰ 成三問, 『成槿甫集』 권1, 「匪懈堂四十八詠并引」 제17수 「海南琅玕」, “幾年爲地秘 千載俟河淸 先王重此物 恩賜在東平.” 유영봉 역주, 『다섯 사람의 집현전 학사가 안평대군에 바친 詩』(다운샘, 2004) 참조.

¹¹ 朴彭年, 『朴先生遺稿』, 「次武夷酬唱詩韻 5首」에 부기된 이용의 元韻과 詩序, “余於丁卯四月 遊桃源之夢. 去年九月 偶乘遊覽 見菊花之泛流 遂攀挽藤石 始得此地. 於是校其夢觀 則草樹參差之狀 川原窈窕之態 稍可髣髴. 乃至今年 結構數間 取武夷之意 扁其號曰武夷精舍 實以怡神棲隱之地也. 仍成雜詠五章 以備來訪之所問. ……景泰二年 辛未秋七月二十有一日 泉石主人琅玕居士淸之書.”

그에게 王室願刹이던 大慈菴에 가서 華嚴經과 法華經을 講하게 했던 것처럼 불경에 대한 이해도 깊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¹²

이용과 교유한 고승으로는 千峯 卍雨(1357-1447 이후), 信眉(1409 이전 출생), 嚴上座(1390 이전 출생)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卍雨는 여말의 고승 幻庵 混修(1320-1390)의 제자이며 혼수의 제자 龜谷 覺雲의 법통을 이은 승려이다.¹³ 그는 왕실의 후원을 적극 받았던 興天寺의 주지를 지냈고 뒤에 檜巖寺 주지도 지냈다. 그에 대해선 이색과 박팽년의 글에 잘 적혀 있는데,¹⁴ 李穡, 李崇仁과 함께 하면서 詩學을 좀 알았던 관계로 1443년에는 잠시 興天寺에 머물면서 이용이 總裁로 참여했던 杜詩註解 사업의 자문역을 지냈기도 했다.¹⁵ 또 이용이 여러 문신과 詩會를 베푸는 자취인 《瀟湘八景詩帖》, 《夢遊桃源圖卷》에 題詩를 남기는 등 깊은 교분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信眉는 崇佛을 주장했던 金守溫(1409-1481)의 형으로 俗名은 守省이다. 法住寺에서 출가했고 뒤에 궁중에 들어가 內願堂을 짓고 法要를 주관했으며, 속리산 福泉寺를 중창하여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는 등 세종후년의 왕실불사에 중심에 섰다. 당시 이용은 복천사에 가서 중창불사를 살핀 뒤 수록재를 올리고 불상을 주조하기도 했다.¹⁶ 또 문종 때 禪敎都摠攝에 임명되었고 세조 때에는 王師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諺解佛書를 널리 간행하고 上院寺 중창하는 등 불교중흥에 앞장서 왕에게 ‘慧覺尊者’란 호를 받았다.¹⁷ 또 이용의 아내 정씨부인의 從兄 鄭孝康이 세종의 지우를 얻어 왕실불사에 가담하면서, 이용은 신미, 김수온, 정효강과 함께 긴밀히 교제했다고 여겨진다.

嚴上座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으나 그가 1450년(33세) 7월 하순 호남의 사찰로 돌아가게 되자 이용이 송별의 서문을 쓴 〈送嚴上座歸南序〉, 〈再送嚴上座歸南序〉가 전래하여 양자의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². 그는 서문 앞쪽에서 “湖南老師 嚴上座가 60여 년간 禪에 전념

¹² 『문종실록』 권13, 2년 4월 5일 己巳.

¹³ 梵海 撰 金俞世 譯, 『東師列傳』(도서출판 廣濟院, 1991), pp.105-106 龜谷大師 條.

¹⁴ 李穡, 『牧隱文集』 권10, 「千峰說」: 朴彭年, 『朴先生遺稿』, 「林香軒記」, “千峰 禪林之表也. 錫住興天 余屢訪焉. 有一童子 常在左右 眉目如畫 余甚愛之. 于後 千峰移錫他伽藍 余固無一日以接軟語況得見所謂童子乎. 今年春 蒙賜暇入天寶山 時千峰年踰八旬 而耳目尚聰明. 余之喜幸何如耶. 千峰亦喜我至 坐我方丈 飲我以茶 呼一衲使之前 從戒其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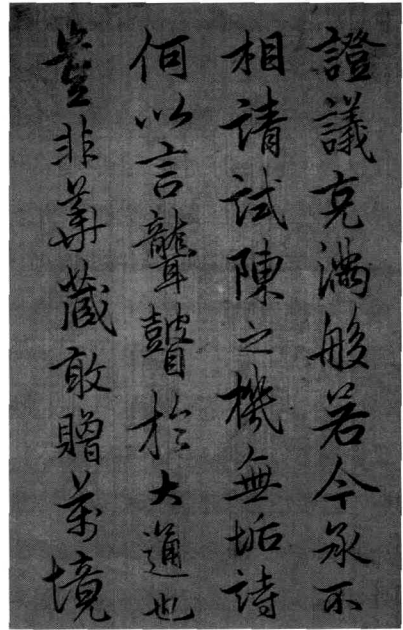
¹⁵ 『세종실록』 권100, 25년 4월 27일 壬子. 천봉 관련 문헌은 李能和, 『朝鮮佛教通史』(寶蓮閣, 1979) 참조.

¹⁶ 『문종실록』 권9, 1년 9월 5일 庚子·9월 10일 乙巳·9월 13일 戊申.

¹⁷ 信眉의 저작과 佛事 관련 기록은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上·下(寶蓮閣, 1979) 참조.

하여 조금도 그침이 없었으니 홀로 般若의 요체를 얻었다. …… 일찍이 秀菴大和尚을 섬겨 반야의 대의를 전수받은 바 있으니…….”라고 했듯이 당시 70여 세를 넘은 禪僧이었다.¹⁸ 이밖에 이용과 친했던 박팽년 등의 기록에 나오는 雲谷, 月菴, 雪京, 松竹軒 潛菴, 竹菴, 和軒 徽上人 등과 왕실불사에 함께 참여했던 大禪師 正心和 衍海, 禪師 雪峰 등도 이용과의 교류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이용이 세종·문종 때 王室佛事に 적극 참여한 사실은 실록 등에 빈번하게 나온다. 그 중 1446년 사망한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고자 왕명에 따라 大慈菴에서 거행된 寫經佛事나 문종초년에 先王 세종대왕을 위한 불사를 주관한 것이 대표적이다.¹⁹ 특히 이용은 대자암을 王室願利로 삼아 비호하면서 임금에게 아뢰어 無量壽殿을 헐어 極樂殿을 새로 짓고 불경을 봉안할 전각을 짓는 등 적극적으로 불사를 이끌었다.²⁰



도 2 李瑢, 〈送嚴上座歸南序〉, 絹本摹書, 25.5×17.2cm, 帖, 개인소장

1446 姜希顔, 李永瑞에게 金으로 寫經하게 하고 수양·안평을 내왕시켜 감독하게 함.

완성된 사경을 大慈菴에 봉안하는 法席을 크게 개최. 『세종실록』 권112, 28년 5월 27일.

왕비를 위해 姜希顔, 李永瑞에게 金銀으로 寫經하게 하고 大慈菴에서 轉經會를 연.

『세종실록』 권114, 28년 10월 15일.

1447 안평에게 명해 佛骨을 興天寺 舍利閣에 안치시킴. 『세종실록』 권117, 29년 9월 24일.

1448 수양과 안평이 宮禁 옆에 佛堂을 둠. 『세종실록』 권121, 30년 8월 5일.

佛堂의 慶讚會 때 안평이 誠寧大君 댁에서 감독하여 조성한 金佛 3구를 안치.

¹⁸ 朴現圭, 「중국 天一閣 소장 安平大君 李瑢의 〈般若說再送嚴上座歸南序〉 書帖 해제」, 『月刊書藝』 통권249호(美術文化院, 2002. 5), pp.88-93 참조.

¹⁹ 李成美 編, 『朝鮮王朝實錄美術記事資料集 I』 書畫篇(1)(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참조.

²⁰ 『문종실록』 권1, 즉위년 4월 1일 癸未.



도 3 李瑢, 《法華經跋》, 1448년, 版本, 29.5×17.8cm, 冊, 개인소장

『세종실록』 권122, 30년 12월 5일.

1449 세자의 치병을 위해 大慈菴에서 水陸齋를 행하게 함. 『세종실록』 권126, 31년 11월 1일.

1450 안평이 소헌왕후를 위해 조성할 金字華嚴經의 종지와 금을 마련함.

『문종실록』 권1, 즉위년 2월 19일.

先王의 初齋를 베풀 때 안평이 法華經 등 9종을 金字로 사성하여 명복을 빌자고 청함.

『문종실록』 권1, 즉위년 4월 10일.

先王 世宗을 薦導하는 津寬寺에서의 水陸齋를 위해 안평 등을 보내 살피게 함.

『문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10일.

또 이용은 왕실불사에 따르는 佛書 간행에도 활동했다. 일례로 1448년(세종 30) 4월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당시 왕실불사를 주도했던 태종의 둘째아들 孝寧大君(1396-1486)과 同心發願하여 『妙法蓮華經』을 간행하고 그 발문을 짓고 썼다도3.²¹ 1449년 12월 8일 大覺日에는 『普勸戒殺生文』을 썼는데, 이 경전은 殺生을 금하고 放生을 권하는 내용으로 편

²¹ 상세 사항은 南權熙, 「麗末鮮初의 出版文化史 一考察 - 金秉九 所藏資料를 中心으로」, 『古印刷文化』 第7輯(淸州古印刷博物館, 2000), pp.113-115 참조.

자미상이다. 말미 寫成記에 “正統十四年臘月八日 梅竹軒清之書”라 하여 字號를 썼는데 왕실불사 때와 달리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²² 또 문종 원년(1451)에는 貴人崔氏와 함께 발원하여 聖躬 및 儲齡의 수명과 太宗大王과 元敬王后,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靈駕와 최씨의 先考·先妣의 仙駕를 위해 『妙法蓮華經』을 간행하기도 했다.²³

2. 詩文 활동

이용의 문예활동은 詩文 方面에서 매우 활발했다.²⁴ 먼저 여러 문사와 자주 詩會를 가졌음이 1442년의 《瀟湘八景詩帖》이나 1447년의 《몽유도원도권》 등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그가 지은 시문으로 1447년작 「夢遊桃源記」를 비롯하여 1451년 무계정사에서 문인들과 주고받은 「武溪唱酬詩」 등이 남아 있다. 또 현존하진 않으나 『增補文獻備考』에 그가 『匪懈堂集』을 남겼다 하는데, 예를 들어 이용이 七律로 「匪懈堂四十八詠」을 짓고 이를 崔恒이 次韻하고 여러 문사(신숙주, 성삼문, 이개, 김수온, 이현로, 서거정, 이승윤, 임원준)가 五律·七律 또는 五絶·七絶로 차운한 기록이 보인다.²⁵ 또 1450년 1월 내조한 明使 倪謙·司馬恂에게 이용이 수십 폭을 써서 주자 예겸이 詩를 지어 사례했고,²⁶ 그해 가을 太監 尹鳳이 사신으로 明에 갔다 오면서 兩使의 서한을 전해주자 뒤에 이용은 兩使의 詩로써 문사들에게 和韻을 청해 11명(신숙주, 최항, 정인지, 신석조, 성삼문, 이개, 서거정, 김종서, 하연, 안지, 박팽년)으로부터 차운시를 받아 이를 모아 詩帖으로 만드는 등 관련기록이 다수 전한다.²⁷ 이러한 이용의 시문활동 중 中國名詩의 註解·詩算 작업이 주목된다. 먼저 1443년 4월 세종의 명으로 辛弼孫 이하 屬官이 되고 이용이 總裁하여 『杜甫詩註』를 편찬했다.²⁸ 또 1447년 7월 여러 문사와 함께 唐宋八家(李白, 杜甫, 韋應物, 柳宗元, 歐陽脩, 王安石, 蘇軾, 黃庭堅)의 오언·칠언시

²² 松廣寺聖寶博物館 編, 『松廣寺佛書展示圖錄』(2004), pp.8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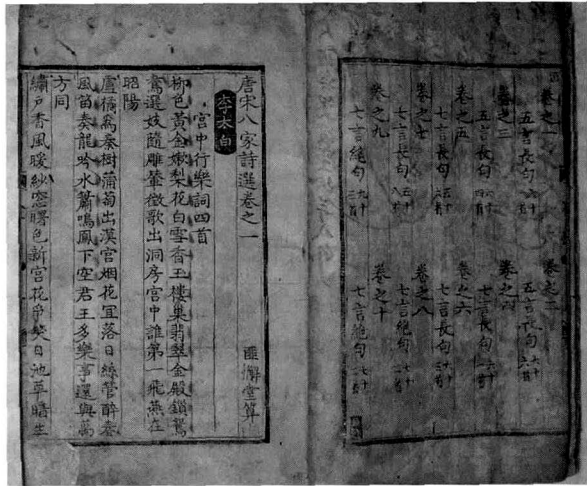
²³ 南權熙, 앞의 논문, p.115.

²⁴ 이용 관련 문헌을 모은 李俔 編, 『安平事迹』(天理大學 中央圖書館 今西龍文庫 9291-453, 筆寫本)이 유용하다. 특히 조선 후기 기록이 다수 실려 있다.

²⁵ 다섯 문사의 次韻詩가 각각의 문집에 남아 있다. 유영봉 역주, 『다섯 사람의 김현전 학사가 안평대군에 바친 詩』(다운샘, 2004) 참조. 이용이 스스로 지은 '비해당사십팔영'의 서문은 魚叔權의 『裨官雜記』에 부분 인용되어 있다.

²⁶ 『세종실록』 권127, 32년 1월 11일 丙辰.

²⁷ 朴彭年, 『朴先生遺稿』, 「題倪內翰司馬右史兩天使贈匪懈堂詩帖」의 詩註. 이 시첩은 宣祖의 아들 義昌君 李瑬이 박팽년의 후손에게 보내주었다고 한다.



도 4 李瑤 編, 『唐宋八家詩選』 권1,
1447년, 26.6×16.7cm, 冊, 개인소장

를 뽑아 『唐宋八家詩選』 10권을 간행한 일이 유명하다.²⁹ 최근 『당송팔가시선』 판본이 발견되었는데도⁴ 여기에는 이용의 序文을 비롯하여 최항, 박팽년, 신숙주, 李善老, 이개, 성삼문의 題跋 등이 각각의 자필로 새겨져 있다.³⁰ 권1-3에 五言長句 191수, 권4-7에 七言長詩 240수, 권8-10에 七言絶句 237수, 모두 10권 668수인데, 그중 이백, 두보, 왕안석, 소식의 시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왕안석의 시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이듬해 이용이 왕안석의 시를 뽑아 天文·人文·地文 3門으로 나누어 『匪懈堂選半山精華』 6권을 간행한 바 있으며³¹ 또 1445년에는 白居易의 시 185수를 가려 『香山三體法』 1권을 간행했다.³² 이밖에 金佺(1597-1638)의 『海東文獻總錄』 등을 보면, 이용이 1446년 北宋 梅堯臣의 시를 가려 약간의 註解를

²⁸ 朴彭年, 『朴先生遺稿』, 「三絶詩書」 참조.

²⁹ 이용은 왕명으로 여러 서적을 간행할 때 형들이나 문신들과 管掌·監修 역을 다수 맡았다. 예를 들어 1444년 『韻會』의 언해사업, 1445년 의학서 『醫方類聚』 65권의 완성 등이다.

³⁰ 상세 사항은 南權熙, 『麗末鮮初의 出版文化史 一考察 - 金秉九 所藏資料를 中心으로』, 『古印刷文化』 第7輯(清州古印刷博物館, 2000), pp.91-99 참조.

³¹ 『匪懈堂選半山精華』 앞쪽에 이용의 「半山精華序」가 있고 그 말미에 “正統乙丑臘月十九日 淸之書于匪懈堂之梅竹軒.”이란 1445년의 관지가 있다. 이어 申叔舟의 1446년 서문이 있다.

³² 연세대중앙도서관 소장, 『香山三體法』, 木版, 1책35장, 21.5×16cm. 日本 蓬左文庫 소장본은 1563년 간본으로 말미에 “乙丑六月匪懈堂書”라 적혀있다. 상세 사항은 沈暉俊, 『香山三體法 研究』(一志社, 1997) 참조.

달아 『宛陵梅先生詩選』 上下 2권을 편집하여 1447년 7월 錦山郡에서 개간했으며, 황정견의 시를 가려 『山谷精粹』를 간행하기도 했다.³³ 이처럼 1443년 두보 시 註解를 필두로 1445년 백거이 시, 1446년 매요신 시, 1447년 당송팔대가 시, 1448년의 왕안석 시, 그리고 황정견 시를 골라 시선을 編刊하는 등 이용은 당시 中國詩學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또 書畫와 관련된 시문활동도 있다. 1442년 8월 이용은 明 周憲王 朱有燾이 1416년에 編刊한 《東書堂集古法帖》에서 南宋 寧宗의 〈瀟湘八景詩〉를 얻어 그 시를 베끼고 그림으로 그리게 하여 ‘八景詩卷’이라 이름하고, 고려 李仁老, 陳澹의 팔경시를 붙여 李永瑞에게 서문을 짓게 하며 당대의 能詩者 18명의 문사와 스님에게 청하여 오언·육언·칠언시를 짓고 쓰게 하였다.³⁴ 당시 제작된 ‘팔경시권’의 자취가 《匪懈堂瀟湘八景詩帖》이란 서첩으로 전한다.³⁵ 이 시첩은 詩作의 결과이지만 山水圖를 전제로 한 畫題詩로서 조선시대 八景詩와 八景圖의 유행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文學史나 繪畫史의 의미가 크다.³⁶

이밖에 이용과 明使의 詩文 교류는 그들이 창화한 시문을 모은 『皇華集』을 비롯하여 倪謙의 『遼海編』 등 중국 사신의 使行錄에서 살필 수 있다. 특히 1450년(세종32) 내조한 明使 한림원시강 倪謙과 副使 급사중 司馬恂이 조선 문신과 文才가 출중한 젊은 문사들과 가졌던 詩會가 대표적인 예이다.³⁷

3. 書畫 활동

이용의 문예활동의 중심은 역시 書畫이다. 그는 중국과 우리나라 서화를 모은 收藏家로서는 물론이요 스스로 서화를 즐겼으며, 세종조의 대표적인 화원 安堅 등을 후원하고 글씨 학습을 위한 法書를 간행·전파시키는 등 서화 진작에 크게 공헌했다.

33 金佺, 『海東文獻總錄』(서울: 學文閣, 1969); 李仁榮, 『淸芬室書目』(서울: 寶蓮閣, 1968), pp.125-129 참조. 각 詩選의 서문은 申叔周, 『保閑齋集』 권15, 『宛陵梅先生詩集序』; 崔恒, 『太虛亭集』 권1, 『山谷精粹序』.

34 李永瑞, 〈瀟湘八景圖詩序〉에 개략이 적혀있고, 朴彭年, 『朴先生遺稿』, 「題匪懈堂瀟湘八景詩卷」에 더 자세하며 詩卷의 후대모습까지 부기되어 있다. 作詩한 사람은 조서강, 강석덕, 유의손, 윤계동, 안지, 남수문, 천봉, 이보흠, 신석조, 성삼문, 김맹, 최항, 박팽년, 정인지, 안승선, 신숙주, 하연, 김종서.

35 호암갤러리 編, 『朝鮮前期國寶展』(1996), 圖 67 참조.

36 팔경시에 관해서는 安章利, 『韓國八景詩 研究』(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참조.

37 『皇華集』 권1; 倪謙, 『倪文僊集』 권14, 「狎鷗亭記」 권24, 「書朝鮮權近應制詩後」 등.

1) 中國書畫의 蒐集

서화활동에 있어 먼저 이용이 당대 최고의 中國書畫 收藏家임을 언급해야 한다. 그의 서화수장에 관해서는 申叔舟(1417-75)의 『保閑齋集』 권14, 「畫記」(1445)에 보이는데, 그 서문과 서예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비해당은 서화를 사랑하여 누가 조그만 종이·비단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후한 값으로 샀으며,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 表粧하여 소장했다. 하루는 이것들을 꺼내 나에게 보이며 말하길 “난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성벽이 있는데 이것도 병이야. 열심히 찾고 널리 찾기를 10여 년 한 뒤에야 이만큼 얻었습니다. 아! 물건의 이루어지고 무너짐에 때가 있으며 모여지고 흩어짐에 운수가 있으니, 오늘의 이룸이 다시 내일의 무너짐이 되고 그 모여짐과 흩어짐이 또 어쩔 수 없게 될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

唐 吳道子…… 今有佛畫二 上有蘇東坡手題贊

宋 郭忠恕…… 今有雪霽江行圖一 上有徽宗御筆

李公麟…… 今有窰戚長歌圖一 宋徽宗御筆題云……

蘇東坡 今有真書潮州印本一

元 趙孟頫…… 今有行書二十六

鮮于樞…… 今有草書六

彥甫…… 水墨雲山圖一 倪中有詩 松石圖一 揭傒斯有詩³⁸

王冕…… 今有墨梅圖五 各有詩

「화기」가 지어졌을 당시 이용은 27세였으므로 10년 전인 17세쯤부터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서화수가 220여 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짧은 시일에 많은 양을 모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대다수인 그림은 조선 安堅과 일본승려 鐵關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晉·唐·宋·元代の 것이다. 이에 비해 글씨는 ‘蘇東坡 真書潮州印本 1, 趙孟頫 行書 26, 鮮于樞 草書 6’의 온전한 서예작품 33점과 여러 그림에 쓴 題贊 10점을 더해 모두 43점이다. 그림수집과 달리 글씨수집은 소식, 휘중, 조맹부, 선우추, 예중, 게혜사, 왕면 등 宋·元代の 것이며,

³⁸ 彥甫는 張彥輔, 揭傒斯는 揭傒斯의 誤記임.

그 중 조맹부, 선우추의 글씨에 집중된 점이 주목된다.³⁹ 또 소식 필적을 “印本”이라 하였고 그가 소장했을 《역대제왕명현집고첩》 등의 法帖이나 조맹부의 《진초천자문》, 《증도가》 등의 刊本이 「화기」에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용의 서예수집품은 墨蹟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맹부(1254-1322)와 선우추(1257?-1302)는 蒙古 지배 아래 중국문화의 재건과 부흥에 이바지한 대표인물로 晉唐 서예를 추구하는 그들의 書畫觀과 復古主義 신념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글씨에서 조맹부는 기법적 완벽과 외형적 整齊美를 추구하여 미려한 글씨로써 당대의 서예계를 이끌었고, 선우추는 조맹부의 그늘에 가려 빛을 발휘하진 못했으나 초서만큼은 조맹부도 양보할 정도로 뛰어났으며 특히 꾸밈없는 率意의 서풍으로 독특한 풍격을 보였다. 이러한 조맹부, 선우추의 서예 경향은 필시 이용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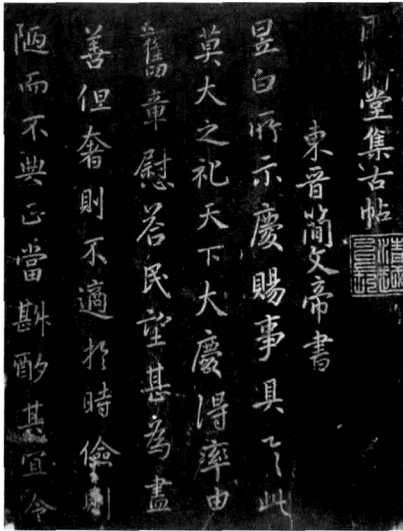
2) 法書의 刊行

왕조실록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왕희지의 《蘭亭敘》, 《東方朔傳》, 조맹부의 《鬪風七月詩》, 《證道歌》, 《東西銘》, 《赤壁賦》, 《眞草千字文》 등의 법서를 간행하였다. 개인 차원에서도 “歷代帝王名賢帖” · “歷代名臣法帖”이라 불리는 《淳化閣帖》 이래의 법첩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모각하기도 했는데, 그중 1416년 明 王子 周有燾이 편집 · 간행한 《東書堂集古法帖》이 큰 시차 없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좋은 사례이다. 이 법첩은 《순화각첩》(992)을 위주로 《淳熙秘閣續帖》(1185)과 宋 · 元人 글씨를 더한 것으로 成化14年(1478) 翻刻되었는데, 이용이 바로 이 법첩을 참고하여 1443년 9월 《匪懈堂集古帖》을 간행하였다. 《비해당집고첩》은 조선시대 법첩의 효시로 아직까지 完本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만 남은 殘本이 임창순 舊藏으로 전한다⁴⁰. 여기에는 간행동기를 적은 이용의 발문이 실려 있다.⁴⁰

이 법첩에는 東晉 簡文帝, 梁 武帝, 魏 鍾繇의 필적, 왕희지 〈墓田丙舍帖〉과 행초 서간, 왕헌지 서간, 조맹부 〈蜚英寺塔〉, 〈潘王留別帖〉, 〈般若波羅密多心經〉, 〈錢唐上天竺寺白衣大士像記〉 등과 신라 金生의 〈田遊巖山家序〉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필적의 대부분은 《순

³⁹ 특히 ‘선우추 초서 6’은 조선시대 서예수장사에서 유일무이하다. 『중종실록』 권50, 19년 5월 10일 甲戌 조에 도승지 金希壽가 선우추 초서 1첩을 진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매우 드무니 석판에 새기자고 건의하자 개간하라는 왕명이 내려질 정도였다.

⁴⁰ “余嘗患世之人未諳古人書法，因采歷代帝王名賢之書，合爲一帖，倩善手入石。庶幾使人人得以楷範云。正統八年九月戊辰，書于匪懈堂。”〔清之〕〔清越以長〕〔存心養性〕〔匪懈堂安平大君之記〕



도 5 李瑤 編, 《匪懈堂集古帖》, 1443년刊, 石刻, 28.5×18.6cm, 개인소장



도 6 趙孟頫, 《真草千字文》, 李瑤 跋, 石刻, 23×17cm, 帖,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화각첩)에 실려 있지만 왕희지의 <묘전병사첩>과 조맹부의 <비영사탑>은 《동서당집고첩》에 실린 것이며, 나머지 조맹부 필적은 당시까지의 法帖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심왕 유별첩>은 조맹부가 심왕 즉 忠宣王에게 써준 것이므로 그 원적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⁴¹

그런데 <비해당집고첩> 잔본에는 왕희지 필적 말미에 “右軍의 진·행·초 필법은 천하가 먼저 따르려는 것으로 기묘한 필적이니, 모름지기 三體가 전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을축년(1445) 늦여름 비해당에서 적음.”이란 이용의 隸書 발문이 새겨져 있다.⁴² 이로 보아 현존하는 잔본은 1443년 초간 이후 왕희지 글씨에 대한 이용의 발문을 追刻한 것이라고 본다. 1450년 11월의 『문종실록』에는 “안평대군이 歷代帝王名賢集古帖, 王羲之眞行草三體, 趙孟頫眞草千字 등의 서법 판본을 바치니, 校書館에 주어 摹印하라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³

⁴¹ 충선왕의 燕京交友에 대해서는 西上實, 「朱德潤と潘王」, 『美術史』 104(東京:美術史學會, 1978.3), pp.127-145 참조.

⁴² 왕희지 필적 끝의 刊記 “右軍眞行草筆法 天下先欲踵奇妙迹 須從三體傳, 乙丑季夏匪懈堂題.”

⁴³ 『문종실록』 권4, 즉위년(1450) 11월 10일 庚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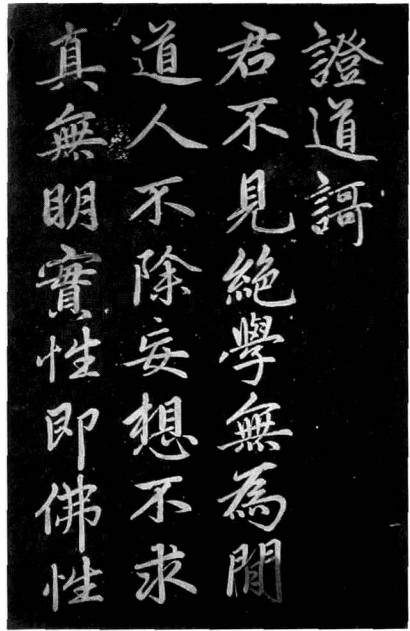
여기에 열거된 필적의 명칭은 각기 單本의 法書일 수도 있지만, 당시 《비해당집고첩》이 간행된 뒤였으므로 혹 이 법첩에 수록된 필적들의 명칭을 지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에 이용이 썼다는 《眞草千字文》 石刻도6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의 필적이 아니라 해서·초서로 쓴 조맹부의 천자문을 모각한 것으로 조선 후기에 간행된 조맹부의 《진초천자문》 목판본과 대조해보면 알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는 “……그의 필법을 애호하여 工人에게 명하여 돌에 새기게 하니 이는 同志들과 함께 하려는 뜻이다. 칭지”란 이용의 발문 끝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⁴⁴

이밖에 조맹부의 필적으로 《證道歌》 石刻도7이 다수 전한다. 이에 관해서는 왕조실록에도 보이는데, 임창순 舊藏의 《海東名迹》 後集에는 이 필적의 간행에 얽힌 이용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다.

1452년 9월 평안도관찰사 鄭而漢(?-1453)이 세종 때 간행한 《증도가》를 모각하여 널리 나눠주려 한다는 뜻을 밝히자 이용이 자신의 소장본을 기꺼이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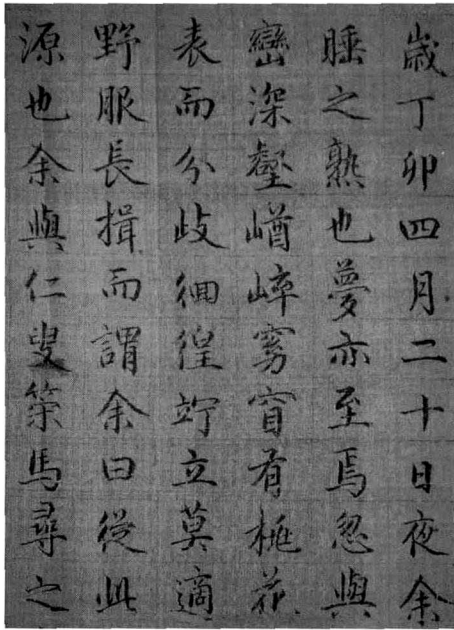
이처럼 이용이 세종연간에 벌인 서화 분야에서의 활동은 매우 빛난다. 특히 서예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까닭에 왕희지 등의 고전서풍과 조맹부를 비롯한 원대 북고주의 서풍이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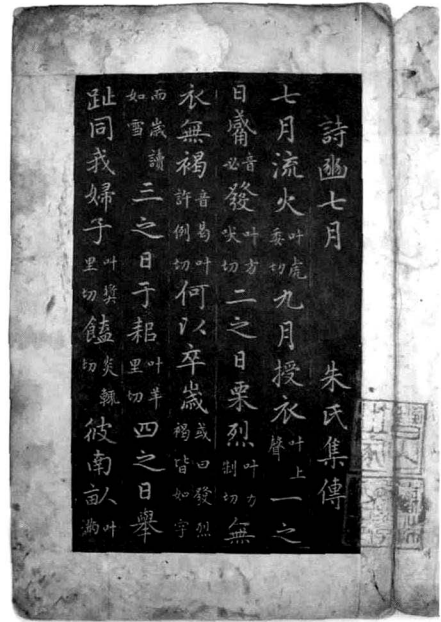
도7 趙孟頫, 《證道歌》, 1316년, 石刻, 38×23cm, 帖, 예술의전당

⁴⁴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본, “愛其筆法 命工刻石 欲與同志者共之. 淸之.”

⁴⁵ 「證道歌 간행의 序文」(1452년, 石刻印本, 《海東名迹》 後集, 임창순 舊藏), “自古人觀鳥垂文. 至王羲之書法 太備於蘭溪之傍脩祓禊之禮. 揮毫製序 興酣而書 臥虎跳龍 遒媚勁健 爲古今書法之第一. 然轉相傳摹 失本彌遠 後世雖有學者 未得效眞 而及有類狗之患也. 皇元趙孟頫 獨追晉法 精於華趣 繼緒千古 高視後世. 我世宗莊憲大王 以孟所書證道歌一帙 三體全彰 八訣不遺 命鑄于石 俾世之學者 得以楷範也. 然石本秘固 人難得有. 平安道觀察使鄭君而漢 按撫一方 庶使邊鄙之人 皆知書法所歸 請予證道歌 將刊板頒行 其用心勤矣. 他日吾東方書法 自西以來 振振濟濟 銀鉤玉筍之光 晃耀於京師 實皆鄭君之賜也. 其不美歟. 予以正本一帖貺之. 因敘其顛末云. 景泰三年 九月下 淸之書.”



도 8 李瑢, 〈夢遊桃源記〉부분, 1447년, 絹本, 38.6×70.5cm, 卷, 天理大學中央圖書館



도 9 趙孟頫, 〈幽風七月詩〉, 14세기, 石刻, 帖,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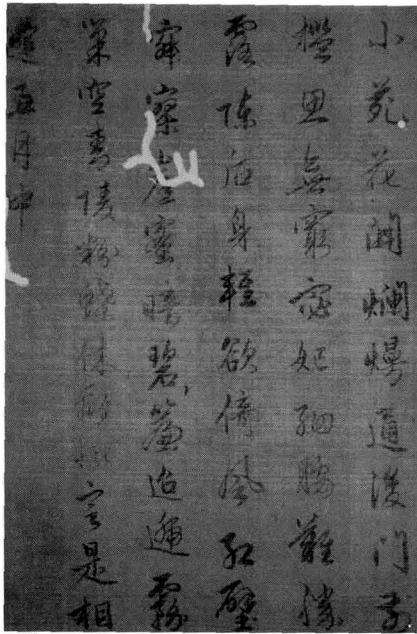
IV. 李瑢의 書藝

이용의 글씨에 있어서의 명성은 당대부터 이미 높았고 후대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필적 또한 15세기 어느 명필에 비해 상당히 남아있는 편으로 몇몇 眞蹟을 비롯하여 다수의 摹刻 필적이 전한다. 흔히 1747년에서야 官爵이 회복되었기에 그의 필적을 소유하거나 전하는 데에 사회적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게다가 이용의 필적이 계유정난 뒤에 모조리 없었다는 억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용의 필적은 1747년 이전에 이미 국가나 민간에 의해 수차 모각되었으므로 이러한 추측은 불식되어야 한다. 本章에서는 이용의 眞蹟을 중심으로 서체별 특징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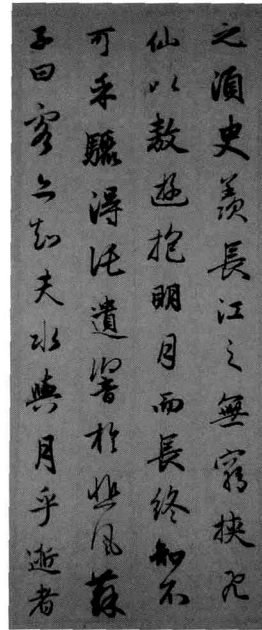
1. 眞蹟

1) 楷書

이용의 해서로는 《夢遊桃源圖卷》에 실린 〈夢遊桃源記〉도8가 가장 유명하다. 이것은



도 10 李瑢, 〈小苑花開帖〉, 絹本, 26.5×16.5cm, 국보 제238호, 개인소장



도 11 趙孟頫, 《赤壁賦》, 1301년, 紙本, 帖, 臺北國立故宮博物院

1447년(30세) 4월 20일 그가 桃源을 노니는 꿈을 꾸 뒤 그 정경을 玄洞子 安堅에게 그리게 하여 3일 후 완성되자 그 사연을 스스로 지어 小楷로 쓴 것이다. 비단 바탕에 종횡으로 界線을 치고 썼다. 글씨는 그가 배웠을 조맹부의 소해필적 《眞草千字文》이나 《關風七月詩》도⁹와 유사하나 그것에 비하여 붓끝의 움직임이 강하거나 기교적이지 않다. 특히 가로획이 좀 위로 굽고 운필이 매우 부드럽다. 이용의 해서가 조맹부의 松雪體에 바탕을 두었지만 이처럼 婉曲한 특징이 더욱 유연하게 나타나는 점이 돋보인다. 이런 점에서 그는 송설체의 특징을 더욱 차분하고 원숙하게 해석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2) 行草

이용의 행초로 전하는 墨蹟에는 대부분 款署가 없다. 그러나 이용의 신빙성 있는 모각 필적과 이들 목적을 대조해보면 짜임이나 점획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진척의 범위에서 언급할 수 있다. 먼저 비단 바탕에 唐 李商隱의 칠언율시 「蜂詩」를 행초로 쓴 〈小苑花開帖〉도¹⁰이 유명하다.⁴⁶ 균형 잡힌 짜임새, 필선의 부드러운 리듬감, 붓끝의 미묘한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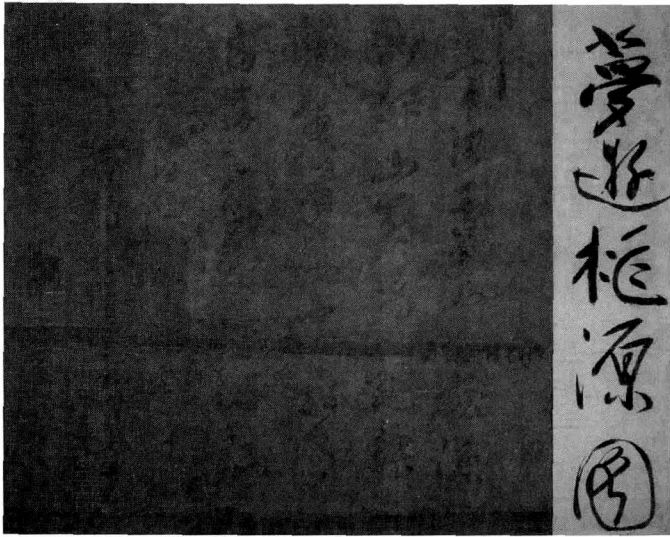
도 12 李瑤, 〈春夜宴桃李園序〉,
 黑紙金泥
 左 : 25.4×12.8cm,
 右 : 25.4×11cm, 개인소장

용필의 완벽성 등이 조맹부의 중년행서(1301년) 〈赤壁賦〉도11와 흡사하면서도 그것에 비해 좀 더 차분하고 평온하다. 이러한 특징은 이용 행초의 전형으로서 다른 필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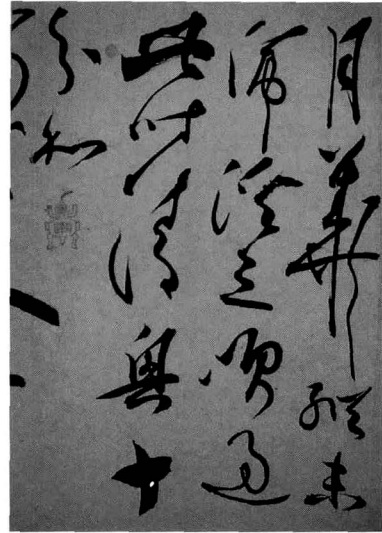
최근 소개된 것으로 黑紙 바탕에 金泥로 쓴 〈春夜宴桃李園序〉도12와 열게 쪽물을 들인 靑紙 바탕에 금니로 쓴 〈七言絕句〉가 있다.⁴⁷ 금니로 썼기 때문에 붓질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형이나 짜임, 점획에서 위의 〈소원화개첩〉과 상통하며 이용의 대표적 모각필적인 〈送嚴上座歸南序〉도18와도 잘 비교된다. 다음 《몽유도원도권》 앞쪽에 실린 것으로 도원을 꿈꾼 뒤 3년째에 푸른 비단에 朱墨으로 쓴 〈七言題詩〉도13가 있다. 탈락이 심해 잘 보이지는 않으

⁴⁶ 文化財管理局 編, 『87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1987)에 “書風으로 보아 李瑤의 典型이 분명히 드러나며, 또 落款과 圖章이 구비되어 眞蹟으로 감정하기에 缺陷이 없다. 비록 小品이기는 하나 지금까지에는 唯一한 珍品이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아직 일반에 공개된 바 없으며 최근 도난되었다. 『國寶 增補版(下)』(藝耕産業社, 1990), 도판 110 참조.

⁴⁷ 어떤 서첩에서 떨어져 나온 낱장으로 바탕을 行에 따라 割裁하였다. 〈春夜宴桃李園序〉는 말미 10자가 없다. 〈草書七絶〉의 내용은 “萬里關山桂影秋 何人橫玉倚高樓 一聲吹入廣寒殿 自有知音在上頭”이다. 예술의전당 편, 『韓國書藝二千年』(2000), 도판 79·80 참조.



도 13 李瑢, 〈夢遊桃源圖 題書〉와 七言題詩, 絹本, 38.7×47.5cm, 卷, 天理大學中央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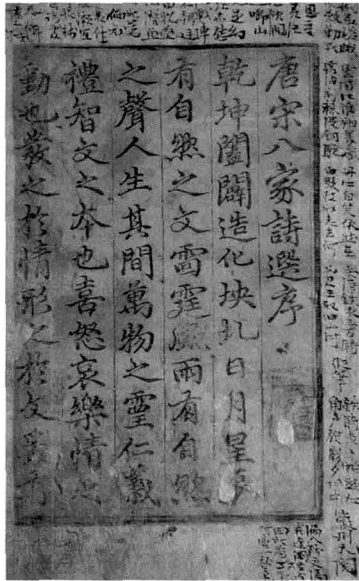
도 14 黃耆老, 〈敬次〉부분, 紙本, 26×110cm, 額, 개인소장

나 자형이 〈소원화개첩〉이나 조맹부의 《진초천자문》과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이용의 행초는 조맹부 글씨의 정수를 깊이 터득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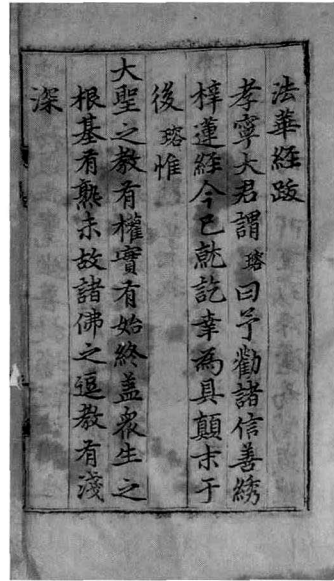
이밖에 《몽유도원도권》 맨 앞에 “夢遊桃源圖”라고 쓴 題簽이 있다¹³. 이에 대해서는 〈七言題詩〉와 서체가 일치한다고 보아 이용 필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⁴⁸ 그런데 양자에서 동일한 글자를 대조해보면, 〈칠언제시〉 제1행의 ‘夢’, ‘桃’, ‘源’ 등은 왕희지, 조맹부의 고전 서풍을 따랐으나 제침의 그것은 자형·짜임·획법·운필에서 훨씬 疎闊하고 放逸하다. 특히 점획을 엮는 방식이나 강한 中鋒勢의 획법이 다르다. 설령 이용이 색다른 서풍으로 題書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16세기 이후의 서풍이 강하게 나타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서풍을 구사한 명필을 든다면 孤山 黃耆老(1521-1575?)가 될 것이다¹⁴.

한편 《몽유도원도권》에는 이용의 측근으로 세종조의 명사 21명의 題詩, 序, 賦 등이 실려 있는데, 朴彭年을 비롯하여 申叔舟, 李塏 등 다수의 글씨가 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당시 젊은 계층에 파급된 송설체의 유행을 직감할 수 있다.

⁴⁸ 安輝濬, 『安堅과 〈夢遊桃源圖〉』(藝耕, 1993), p.108.



도 15 李瑢, 〈唐宋八家詩選序〉, 1447년,
 版本, 26.6×16.7cm, 『唐宋八家詩選』,
 개인소장



도 16 李瑢, 〈法華經跋〉, 1448년, 版本,
 29.5×17.8cm, 冊, 『法華經』 卷4-7,
 개인소장

2. 摹刻 필적

모각 필적은 해서·행초·大字書 등 다양하다. 당시에 모각한 것과 후대에 모각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刊記가 달려 있기도 하여 이용 글씨를 살펴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들 주요한 모각 필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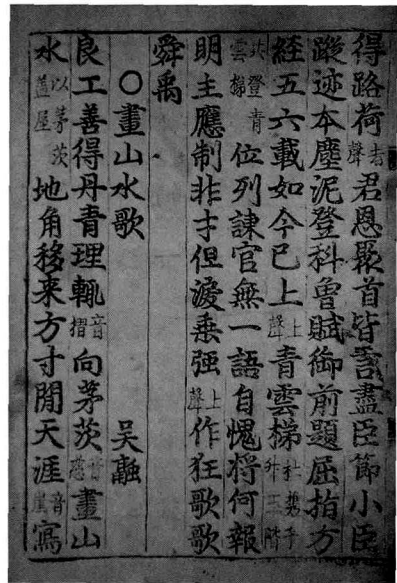
1) 楷書

해서로는 1447년의 〈唐宋八家詩選序〉도15와 1448년의 〈法華經跋〉도16이 대표적이다. 같은 시기에 쓴 1447년 〈몽유도원기〉에 비해 글자가 좀 크며 간간이 납작한 자형도 보이고 있어 조맹부의 《진초천자문》·《빈풍칠월시》와 中字楷書인 《증도가》를 섞은 듯하여 이용 해서의 바탕을 잘 말해준다.

이용이 쓴 비문으로 1452년에 세워진 〈英陵神道碑銘〉이 유명하다. 그러나 마멸이 심해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⁴⁹ 마멸 이전의 古拓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오른쪽 하단

부에 몇 자의 희미한 윤곽이 보일 뿐인데 짜임은 송설체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또 그가 쓴 비문으로 <臨瀛大君李璆墓表>, <青城府院君沈溫墓表>가 있는데, <임영대군묘표>는 20세기에 재건된 것으로 후대서풍이 강하게 더해져 있으며 <심온묘표>도 마멸이 심해 앞면에 대자로 새긴 隸書題名을 제외한 다른 면모를 살피기 어렵다. 이들 비문 글씨에 대해 李德懋(1741-1793)는 『東國金石評』에서 “영릉비액의 큰篆書는 살찌고 둔해 빼어난 기운이 없고 碑面의 해서는 난숙하나 좀 약하다. 임영대군비액의 楷書는 飄逸한 기세가 없고, 沈溫碑額의 八分은 체재가 없다.”고 했는데, 혹 마멸된 상태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혹평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

이밖에 이용은 문종 즉위년(1450) 7월경에 주조한 동할자인 庚午字의 字本을 썼다. 이 활자는 그가 賜死된 뒤 세조원년(1455)에 녹여져 姜希顔(1419-1464)의 자본으로 乙亥字를 주조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매우 짧다.⁵⁰ 따라서 印出本도 적은데 현재 『歷代兵要』, 『古今歷代十八史略』, 『詳說古文眞實大全』도 17, 『新編算學啓蒙』 등이 알려졌다. 자형은 <몽유도원기>나 전술한 판본 필적에 비해 보다 가지런하고 규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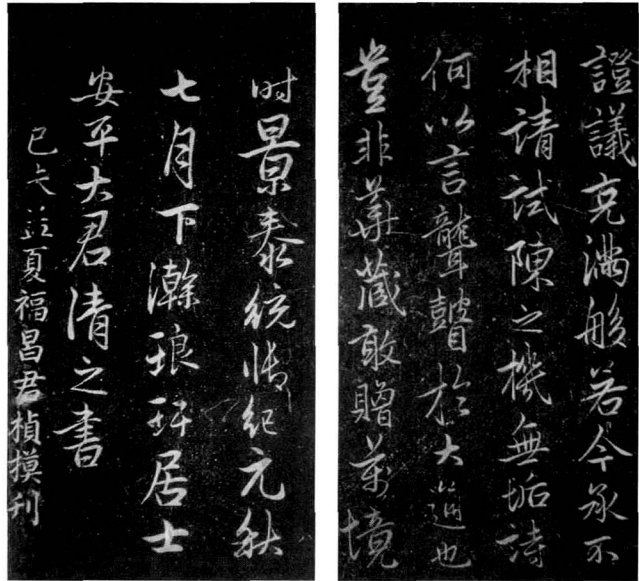
도 17 『詳說古文眞實大全』 권7, 庚午字本, 25.8×20cm, 冊, 보물 제967호, 개인소장

49 『文宗實錄』 권12, 2년 2월 甲申, “英陵碑를 세웠는데 판서 鄭麟趾가 비문을 짓고 안평대군 이용이 篆額과 碑文을 썼다.” 비문은 마멸되었으나 全文이 『新增東國輿地勝覽』·『列聖誌狀通記』·『全州李氏璆源譜牒』 등에 실려 있다. 『속중실록』 권23, 17년(1691) 7월 3일 丙辰에 비면이 이미 마멸되었음이 적혀 있다.

50 『성종실록』 권49, 5년 11월 22일 癸酉, “御書講 講訖. 同知事李承召啓曰……請印頒後漢書等諸史. 上謂右副承旨 金永堅曰 今用何鑄字印書. 對曰 甲寅乙亥兩年所鑄字也. 然印書莫善於庚午字而以瑤之所寫 已毀之. 命姜希顔寫之而鑄成乙亥字是也. 上命永堅 印頒諸史.” 경오자에 대해서는 千惠鳳, 「庚午字攷」, 『韓國書誌學研究』 古山千惠鳳教授停年紀念選集(1991), pp.860-880; 南權熙, 「麗末鮮初의 出版文化史 一考察 - 金秉九 所藏資料를 中心으로」, 『古印刷文化』 第7輯(淸州古印刷博物館, 2000), pp.155-160 참조.

도 18

李瑑, <送嚴上座歸南序> 제1·8면,
1450년, 石刻, 19.1×10.3cm, 額,
국립중앙박물관



2) 行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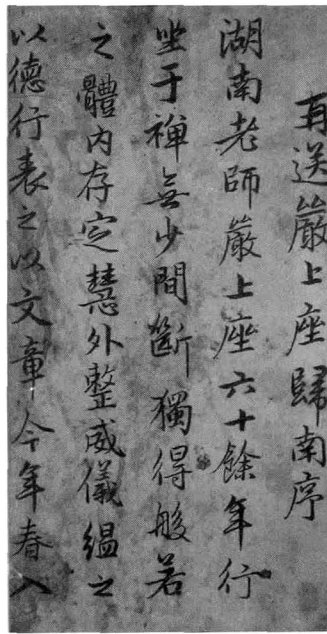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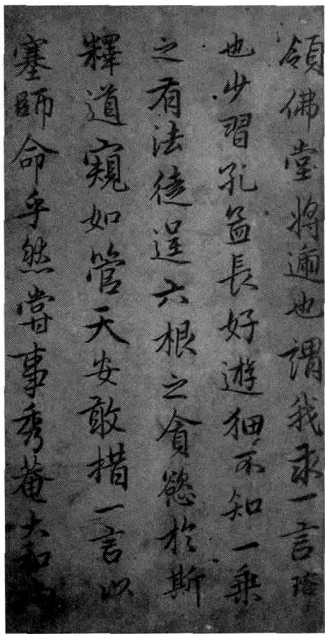
행서와 초서 가운데 모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送嚴上座歸南序> 石刻도18이 유명하다. 석판 1매에 4行씩 모두 8매에 모각했는데, 마지막 판 끝에 小楷로 “己未孟夏福昌君楨撰刊”이라 새겨 1679년 福昌君 李楨(?-1680)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¹ 1450년(33세) 7월 하순에 쓴 것으로 말년의 무르익은 글씨인데, <소원화개첩>에 비하여 점획이 더 변화롭고 짜임도 훨씬 활달하다. 특히 붓끝의 움직임이 예리하게 모각했기 때문인지 필세도 강하게 보인다. 이 필적은 비단 바탕에 정세하게 모사한 것도 전하고도⁵² 뒤에 木版으로 陽刻되기도 했다. 또 <再送嚴上座歸南序>도19란 摹書 2종도 전하며 엄상좌를 찬미하는 <嚴上坐贊>(석각, 6매 3행씩)도 전하고 있어 <送嚴上座歸南序>와 일련의 것임을 말해준다.⁵³

1443년(26세)에 쓴 <비해당집고첩跋>도20은 이용의 기년작 가운데 가장 이르고 서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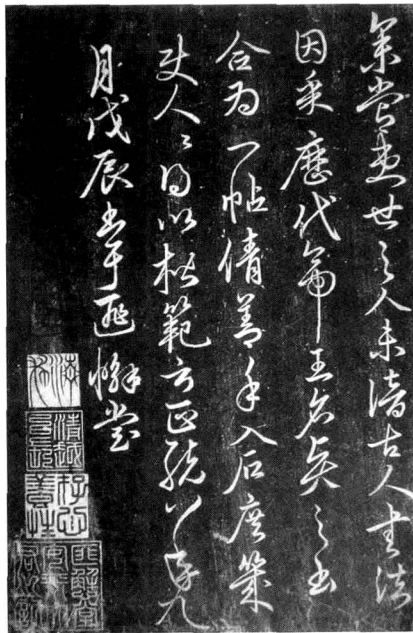
51 북창군은 麟坪大君 李滄의 아들, 進賀兼謝恩正使로 淸에 다녀왔고 1680년 庚申大黜陟 때 남인 許堅 등의 추대를 받아 역모했다는 무고로 아우 福善君 福平君과 함께 유배·사사됨.

52 예술의전당 편, 『朝鮮王朝御筆』(2002), 도판 75 참조.

53 澗松美術館과 중국 寧波市天一閣 소장품, 『澗松文華』 38, 도판 3; 朴珪圭, 앞 해제; 예술의전당 편, 『통문관 주인 산기 이검노 선생 기증 韓中日 書藝·古文獻 資料』(2002), 도판 23.



도 19
 李瑢,
 〈再送嚴上座歸南序〉 제1·2면,
 1450년, 紙本摹書, 27.9×14.3cm,
 帖,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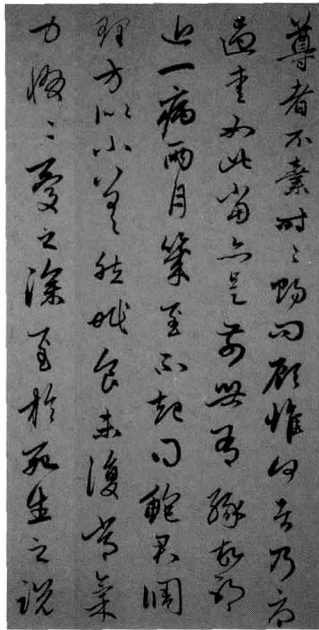


도 20 李瑢, 〈匪懈堂集古帖跋〉, 1443년, 石刻,
 28.5×18.6cm, 《匪懈堂集古帖》,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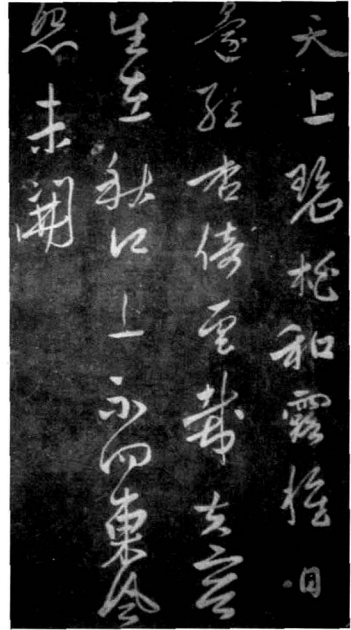


도 21 李瑢, 〈李校理書〉 부분, 石刻,
 각 27×18.5cm, 《集帖》, 개인소장

도 22
趙孟頫, 〈致中峯明本〉 부분,
紙本, 세로 28cm, 帖,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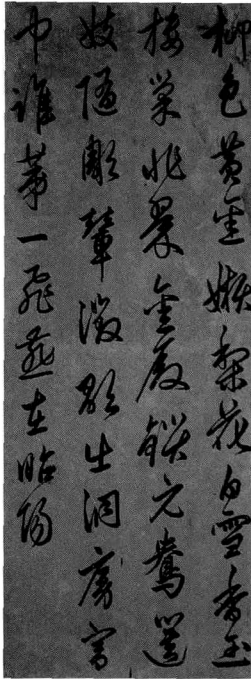
도 23
李瑤, 〈七言絕句〉, 1452년,
石刻, 29×16cm,
《琅玕居士書法》, 帖,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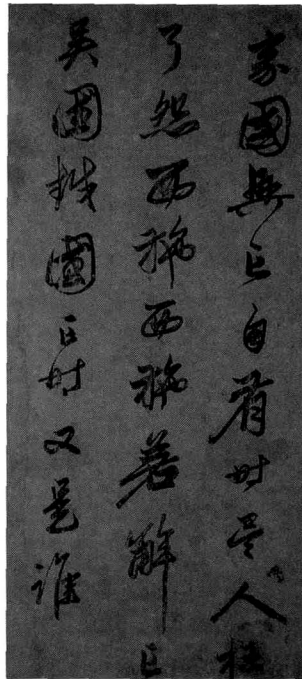
이후의 것과 좀 다르다. 자형이 위아래로 수려한 점에서 조맹부의 서풍과 더불어 왕희지 행초의 영향이 상당히 잔존해 있어 이용도 초년에는 왕희지 등의 고전적 서법을 익혔음을 짐작하게 해준 필적이다. 이 발문 필적보다 좀 뒤에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 예로서 〈書李校理〉도21라는 서간이 전한다. 현재까지 이용의 서간으로 알려진 유일한 필적인데, 초서를 위주로 하여 간간히 행서를 가미한 것으로 위 발문 필적에 비하여 조맹부의 초서풍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특히 모각 솜씨가 우수하여 서풍을 비교하기에 좋은데, 조맹부의 尺牘도22에 상당히 근접하는 필치이다.⁵⁴

최근에 文宗의 초서(木版陽刻), 이용의 행초(木版陽刻 石版陰刻), 조맹부의 행서 〈歸去來辭〉(石版陰刻) 등의 모각필적을 합친 서첩이 소개되었다. 이 필적도 각법이 예리하여 原蹟의 면모를 잘 전했으며 수량도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석판 8매에 새긴 〈七言絕句 7수〉도23는 이용이 35세 때인 1452년 12월 하순에 썼다는 점에서 그의 말년 글씨로서 매우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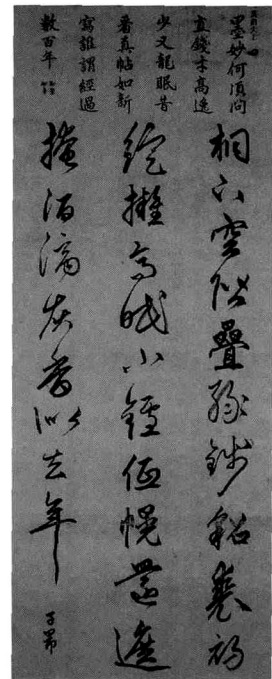
⁵⁴ 조맹부·이용·金玄成(1542-1621) 필적을 모은 《集帖》에 실려 있음. 내용은 李校理에게 造紙 작업에 참여한 승려들의 처리와 이전에 부탁한 종이를 언제 보내줄지를 묻은 것이다.



도 24 李瑤, 〈行草李白詩 6쪽〉 제2쪽, 版本, 123×51cm, 屏風, 개인소장



도 25 李瑤, 〈行草李白詩 6쪽〉 제3쪽, 版本, 81×39cm, 屏風, 강릉시·오죽헌 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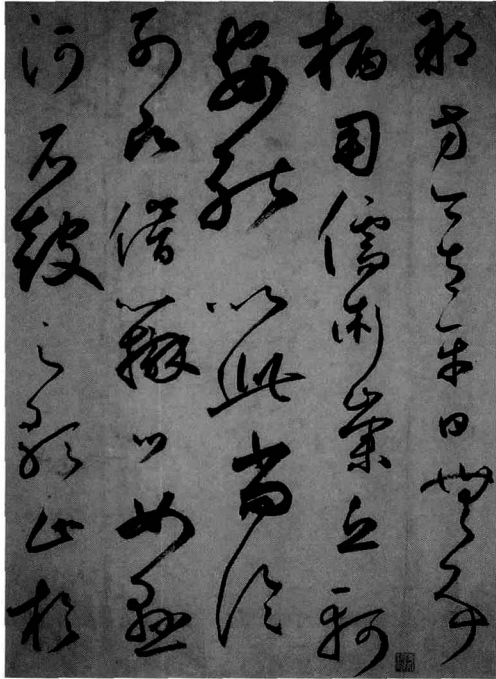
도 26 趙孟頫, 〈陸龜蒙詩〉, 版本, 144.5×56.7cm, 軸, 강릉시·오죽헌 시립박물관

하다도23.⁵⁵ 이전의 행초 필적에 비해 짜임이 보다 변화롭고 점획의 강약도 뚜렷하며 운필에 있어서도 힘들이지 않은 능숙한 처리를 보인다.

3) 大字書

대자서로 목판에 새긴 屏風用 행초가 두 벌 전한다. 한 벌은 자형이 좀 길쭉하고 圓筆이 많으며, 다른 한 벌은 자형이 좀 납작하고 각진 方筆이 섞여있다. 먼저 자형이 좀 길고 운필이 부드러우며 圓筆이 많은 예로 李白의 오언을시를 쓴 〈行草李白詩 6쪽〉도24은 드문드문

⁵⁵ 이 서첩에 대해서는 李鍾默, 『豹菴藏書本 文宗과 安平大君 筆帖』, 『문헌과 해석』(1999년 가을호, 통권8호), pp.210-261 참조.



도 27 鮮于樞, 〈石鼓歌〉부분, 1301년, 紙本,
44.8×364.7cm, 卷,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John M. Crawford Jr. 기증품)

행서를 더한 것으로 운필의 율동감이 매우 돋보이는 필적이다. 또 자형이 좀 납작하고 각진 획이 섞인 예로 李白의 칠언절구 6수를 목판에 새긴 또 다른 〈行草李白詩 6 폭〉도²⁵은 모각으로 인해 좀 딱딱해졌지만 운필이 힘차고 경쾌하다.⁵⁶

이들 이용의 대자행초 필적을 조맹부의 대자행초 〈陸龜蒙詩〉木版도²⁶과 비교해보면, 행서 글자와 초서 글자를 섞거나 방필과 원필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 경사진 삐침·파임이나 긴 가로획으로 운필의 리듬을 강조한 점, 위아래 자를 잇는 처리에 이르기까지 흡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 이용이 선우추의 초서 6점을 소장했듯이 이용의 행초풍에 있어 선우추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선우추의 초서로 唐 韓愈의 長詩를 쓴 〈石鼓歌〉도²⁷에 비교하면, 직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한 획이나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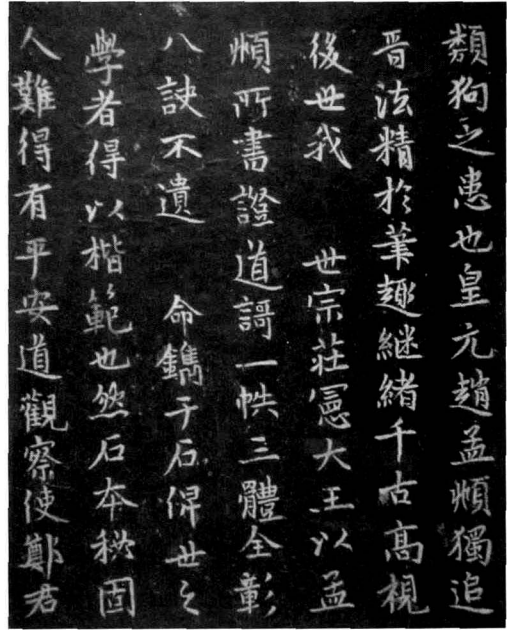
의 대소를 뚜렷하게 구분한 점에서 상당한 연관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조맹부와 선우추의 초서에는 王羲之와 唐 孫過庭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懷素나 顏真卿 등의 분방하고 솔직한 행초서풍이 배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은 그들의 필적을 통해 晉唐古法의 풍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3. 集帖 필적

우리나라 역대 명필들의 필적을 수록한 《海東名迹》(1620경 初刊), 《東國名筆》(1661 初刊), 《大東書法》(17세기말 간행) 등의 集帖에도 이용 필적이 다수 모각되었다.

⁵⁶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원래 8폭 병풍용인데 현재 6폭만 남아있다.

먼저 《海東名迹》 後集 제20-38면에 8종 12점이 실려 있다.⁵⁷ ①소해 〈趙松雪證道歌序〉 ②행초 〈淸之爲謹甫作〉 ③초서 〈四言題畫詩〉 ④초서 〈題金子閏所贈倭本音韻書後〉 ⑤초서 〈周濂溪愛蓮說〉 ⑥초서 〈與李佐郎書〉 ⑦초서 〈七絶 3수〉 ⑧초서 〈七律 3수〉 등으로 좀 무디게 모각되었지만 다른 첩에서 볼 수 없는 필적들이다. 그중 맨 앞의 ①은 앞서 언급했듯이 평안도관찰사 鄭而漢이 1452년 조맹부의 《증도가》를 목판에 새겨 유포하려 하자 이용이 모각할 底本을 기꺼이 내주었다는 내용의 서문이다. 이용 말년의 小楷로 왕희지 소해서풍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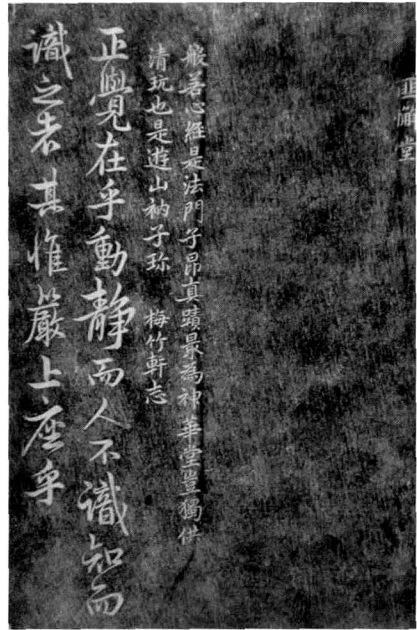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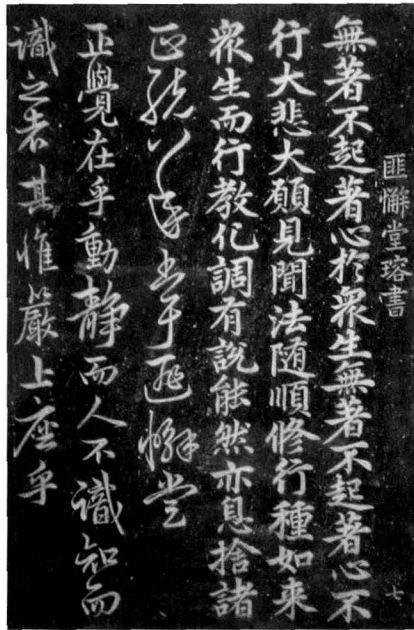
도 28 李瑬, 〈趙松雪證道歌序〉 부분, 1452년, 石刻, 37.5×24cm, 《海東名迹》 後集, 개인소장

《東國名筆》과 뒤의 수정판 《觀瀾亭石刻》에 수록되었는데, 전자에는 해서로 쓴 〈寫經殘片〉 3행과 행초로 쓴 〈비해당집고침跋〉 1행, 〈엄상좌찬〉 2행이 새겨져 있고, 후자에는 전자의 〈사경잔편〉을 비우고 〈비해당집고침跋〉 대신 조맹부의 般若心經 필적에 관한 小楷 발문 2행이 새겨져 있으며⁵⁸ 〈엄상좌찬〉은 그대로 남아 있다²⁹. 이 가운데 〈사경잔편〉은 이용의 서풍과 다른데 아마 잘못 전칭된 것을 모각했다가 《관란정석각》에서 삭제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맹부의 사경에 대한 小楷 발문인 〈趙子昂寫經跋〉은 《해동명적》의 〈조송설증도가서〉와 함께 이용의 소해서풍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大東書法》에는 5종의 필적이 실렸는데 모각이 우수하다. ①大楷 〈淨界〉 ②행초 〈淸之爲謹甫作〉 ③초서 〈七言詩稿〉 ④행서 〈史記屈原傳〉 ⑤소해 〈寫經殘片〉이다. 이 중에 ②는

57 보물 제526호 《海東名迹》 前·後集이나 수록 내용이 좀 다른 固城李氏 臨淸閣 소장 《海東名迹》 前·後集에도 이용 필적은 실려 있지 않다. 이와는 別本の 임창순 舊藏 《海東名迹》 後集에만 이용 필적이 실려 있다.

58 발문은 “般若心經 是法門子昂眞蹟 最爲神華堂 豈獨供淸玩也 是遊山衲子珍 梅竹軒志.”



도 29

左 : 李瑤, 《匪懈堂瑤書》부분, 石刻, 33.5×21.4cm, 《東國名筆》, 帖, 국립중앙도서관

右 : 李瑤, 《匪懈堂》부분, 石刻, 32×23.3cm, 《觀瀾亭石刻》, 帖,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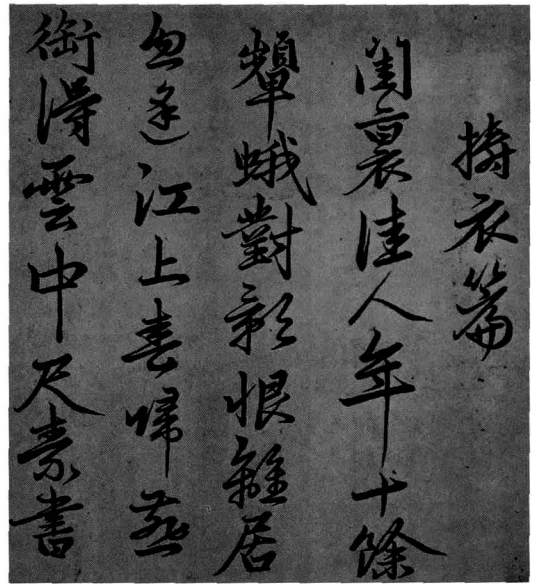
도 30

李瑤, 《寫經 잔편》, 版本, 36×26cm,

《大東書法》, 冊, 개인소장

앞서 본 《해동명적》의 것과 같으나 나머지는 다른 첩에 없는 필적이다. 모두 이용 서풍에 가까운데 특히 ④는 《증도가》를 닮았다. 그리고 ⑤소해로 쓴 〈사경잔편〉도30은 晉唐小楷를 바탕으로 한 조맹부의 소해 서풍에 가깝다.

이상의 集帖에 실린 필적은 이용의 후대의 목판본 집첩에 복각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金文會(19세기)의 《歷代古今法帖》에는 《대동서법》의 ③과 《해동명적》 후집의 ②가 복각되었고, 白斗鏞(20세기)의 《海東歷代名家筆譜》에는 〈行草李白詩 6폭〉중 “淸之”라 쓴 마지막 폭이 복각되었다. 이처럼 이용 필적이 《해동명적》 이후 조선시대 집첩에 지속적으로 모각되었음은 서예가로서 명성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도 31 傳 李瑑, 〈擣衣篇〉, 紙本摹書, 31.6×24cm, 《匪懈堂書蹟》, 帖, 개인소장

4. 傳稱作

오늘날 이용 필적으로 전칭되는 예가 다수이나 대부분 서명이나 관서가 없다. 그중 어떤 것은 이용 서풍에 근접하여 참고자료로서 활용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이용 글씨를 포착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먼저 李白의 시를 행초로 쓴 〈擣衣篇〉도31이 소개된 바 있다. 舊藏者는 이를 목판본이라 했으나⁵⁹ 두꺼운 장지에 점획의 윤곽을 베끼고 그 안을 먹으로 채우는 鈎勒廓填에 의한 摹書이다. 이용의 일반적 행초풍에 비해 좌우로 획이 너무 뻗어있고 짜임과 획법도 미숙하며 字間도 넉넉하지 않다. 모사 수준도 낮아 이용의 기량을 살피기에 미흡한 필적이다.

⁵⁹ 任昌淳 編, 『書藝』 韓國美術全集 11(同和出版公司, 1973), 圖63; 千惠鳳 編, 『書藝·典籍』 國寶 12(藝耕出版社, 1985), 圖14. 설명문에서 소장자였던 任昌淳은 “목각한 것인데 각법이 정교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임란 이전에 刻版된 것 같다. 五言詩나 擣衣篇이 모두 印刷가 선명하여 얼핏 보아서 眞蹟이 아니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이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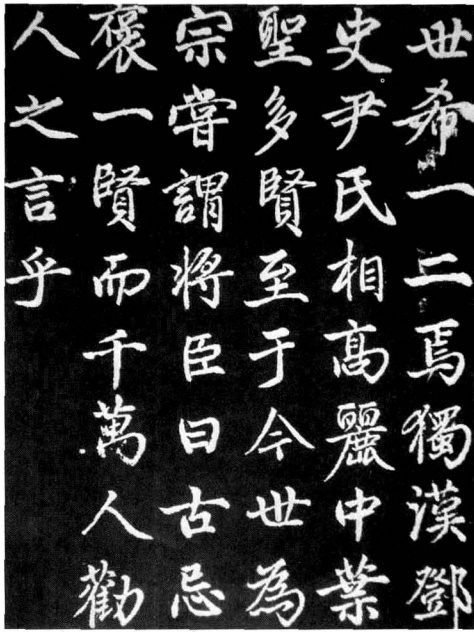


도 32
 傳 李瑢, 〈妙法蓮華經〉 권5, 紺紙金泥,
 22.5×11.3cm, 《匪懈堂書法》, 帖,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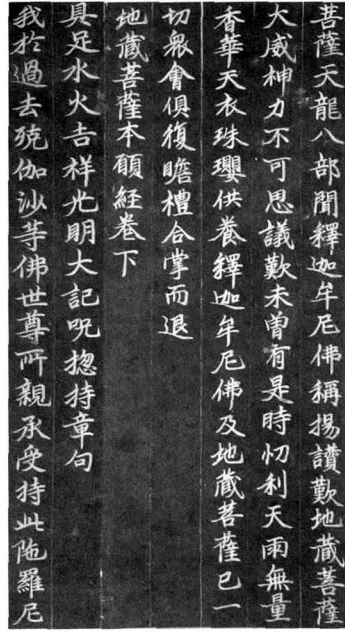
또 이용이 왕실발원의 寫經佛事に 참여한 기록이 왕조실록 등에 자주 나온다. 그 때문인지 이용의 전칭작 사경이 꽤 있는데⁶⁰ 대부분은 조선 초기 사경풍을 보이거나 이용의 서풍과는 거리가 멀다. 일례로 『妙法蓮華經』 권5를 금니로 쓴 《匪懈堂書法》^{도32} 첩의 말미에 실린 金正喜(1786-1856)의 발문에서 이용 필적으로 冒稱된 사경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경이 《진초천자문》이나 《증도가》 등 조맹부의 서풍에 근접하여도 이용 당시와 직후에 그와 유사한 서풍을 구사했던 사람이 적지 않았으므로 신빙성 있는 전칭작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이용과 함께 종종 사경에 참여한 姜希顔(1417-1464)이나 절친했던 朴彭年의 글씨가 그렇다³³.

그리고 최근 『地藏菩薩本願經』을 감지금니로 필사한 殘缺本이 이용의 필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과 같은 原蹟에서 떨어져나간 여러 殘片이 국립중앙박물관·간송미술관·개인 등에 흩어져 있다. 寫成記나 필사자의 서명이 없고 서풍에 있어서도 이용 서풍과 同異한 점

⁶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寫經殘片〉, 紺紙金泥, 23.3×9.5cm, 《海東名筆》帖(國立中央博物館編, 『國立中央博物館所藏書畫圖錄』第八輯, 도판18 6/25), 本2013 《匪懈堂書法(安平大君金字金剛經)》, 紺紙金泥 / 손창근 기탁품 141, 《匪懈堂書法》, 紺紙金泥, 22.5×11.3cm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梅竹軒眞墨》, 紺紙金泥, 20×10.6cm 등이 있다.



도 33 姜希顔, 〈尹炯墓碑〉, 1453년, 拓本,
《金石清玩》, 帖,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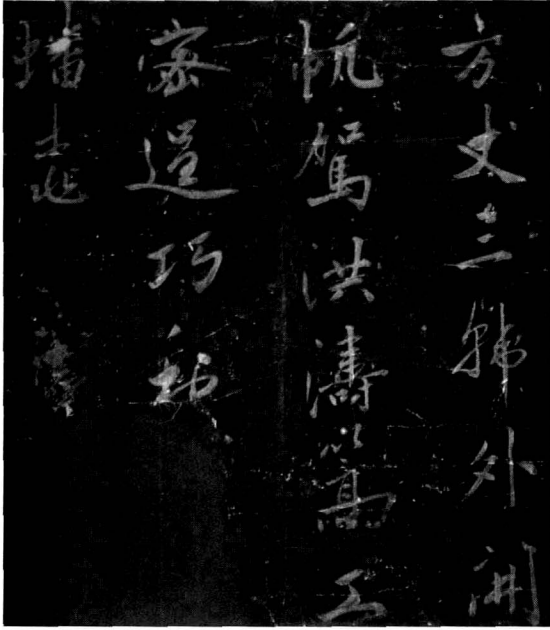
도 34 傅 李瑑, 〈地藏菩薩本願經〉, 紺紙金泥,
37.4×19.7cm, 《梅竹軒筆帖》, 개인소장

이 있으므로 차후 연구되어야 한다^{도34, 61}.

한편 이용의 전칭작 중 사경처럼 紺紙나 黑紙에 金泥로 쓴 필적이 있다. 예를 들어 吳世昌이 수집한 《槿墨》에 수록된 이용의 전칭작 〈杜詩 五言名句〉^{도35}가 대표적이다. 이용의 다른 필적에 비해 짜임새가 위아래로 길고 획이 직선적이며 짜임이 가운데로 몰린 점에서 전칭작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⁶² 이밖에 이용의 扁額 필적으로 大慈庵의 海藏殿

⁶¹ 최근 일간지(2005.7.5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梅竹軒筆帖》(紺紙金泥 帖大 47.3×27cm 書面 37.4×19.7cm, 15面 7行20字)은 梧桐版 표지에 “梅竹軒筆帖”이라 새기고 그 아래 [米月樓藏]이란 所藏印이 새겨 있다. 보도문에 “正統十四年”이라 명기되어 있어 1449년(32세) 필적이라 했으나 그런 年記는 없다. 한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寫經殘片〉, 紺紙金泥, 22×10.2×6.2cm 《海東名筆》帖 (『國立中央博物館韓國書畫遺物圖錄』 第八輯, 도판18 5/25) / 간송미술관 소장, 《寫經小帖》, 紺紙金泥, 書面11×5cm (韓國民族美術研究所 編, 『潤松文華』 38, 도판2) / 충남대학교박물관 소장, 〈寫經殘片〉, 紺紙金泥, 21×20cm / 개인소장, 〈寫經殘片〉, 紺紙金泥, 24.2×10.9cm, 《朴先生手稿》帖.

⁶² 이러한 점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으로 黑紙金泥의 〈小學 구절〉도 같다.



도 35 傳 李瑑, 〈杜詩 五言名句〉 후반부, 黑紙金泥, 25×51cm, 《槿墨》, 성균관대박물관

과 白華閣 편액, 봉암사 晴雪樓 편액, 영남의 二樂樓 편액 등을 썼다는 기록이 전하지만⁶³ 현존하는 편액은 없다. 또 이용이 頭流山 靈神寺의 〈迦葉圖贊〉을 짓고 썼다고 전하나 이 역시 전하지 않는다.

V. 李瑑 書藝의 評價

이용의 서예는 그가 계유정난의 화를 입은 뒤에도 큰 변함없이 찬미되었다. 그의 글씨에 대해서는 당대나 후대의 찬사뿐만 아니라, 그의 글씨를 접했던 明·淸의 문사들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1450년(세종32) 1월 내조한 明使 한림원시강

倪謙과 副使 급사중 司馬恂이 중국에 전할 妙筆을 청하자 이용이 수십 폭을 써 주었는데, 이를 본 예겸이 “우리나라에 陳謙이 글씨로 천하에 이름이 났는데 필력이 굳세고 활발한 기상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정말 松雪翁의 三昧를 얻은 것입니다.”라고 할 정도였다.⁶⁴ 이 말은 사신으로서 외교적 修辭라기보다는 조맹부 서풍의 진수를 터득함에 있어 명나라 어느 문사보다도 뛰어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겸이 귀국하여 이를 景帝에게 진상하자 “매우 좋다. 바로 이것이 趙子昂의 서체이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며 뒤에 내조한 明使들도 이용 필적을 얻기를 원했다고 전한다.⁶⁵ 예겸이 이용의 필적을 감상하면서 적은 아래의 발문은 당시의 평가를 잘 전해준다.

⁶³ 成倪, 『慵齋叢話』 권1, “安平書大慈菴海藏殿白華閣之字 蔚然有飛動意 亦絕寶也.”

⁶⁴ 『世宗實錄』 권127, 32년 정월 11일 丙辰, “倪天使曰, 我國學士陳謙以書振名於天下 筆力勁活之象 不及於此 誠得松雪翁之三昧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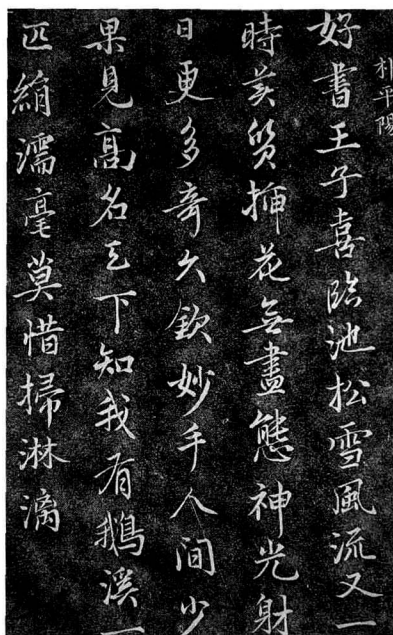
⁶⁵ 『文宗實錄』 권3, 즉위년 8월 5일 丙子 · 8월 19일 庚寅.

이것은 조선국왕 李禎의 셋째아들 안평군 이용이 쓴 것인데, 내가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얻은 것이다. 대저 三韓은 먼 곳의 오랑캐이나 글씨에 능함이 이와 같으니 文化에 있어 바깥(外邊)이 없음을 보여 준다. 敬奉內翰인 錢先生과 함께 감상하였다.⁶⁶

또 金安老(1481-1537)의 『龍泉談寂記』에는 이런 일이 있는 뒤 明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이 중국의 妙筆을 구하려 하자 明인들이 너희 나라에 제일의 명필이 있는데 굳이 먼데서 구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또 成倪(1439-1504)의 『慵齋叢話』에는 우리나라 명서가를 평가한 중에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었다.

안평대군은 오로지 子昂(조맹부)을 모방했으나 豪邁함에 있어서는 서로 아래위를 다룰 정도로 늙름한 것이 飛動하는 필의가 있다. 시강 倪謙이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편액에 쓴 두 글자를 보고 “이것은 非凡한 사람이 쓴 것이니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 하겠다.” 했다. 임금께서 안평대군에게 명하기를 “가서 시강을 만나보라.” 하셨다. (시강은) 그의 필적을 아껴 말하길 “지금 陳學士(陳謙)가 글씨를 잘 써 중국에서 이름을 날리나 왕자에 비하면 전혀 미치지 못 한다.” 하며 더욱 예의를 갖추고 마침내 글씨를 받아가지고 갔다. 그 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글씨를 사왔는데 바로 그가 쓴 것이었다. 안평대군이 크게 기뻐하며 자신만만해 하였다.

또 이용과 친밀했던 집현전학사 朴彭年은 이용 글씨를 왕희지와 조맹부에 비유하면서 “비해당의 글씨는 왕우군의 필법을 얻어 마치 용이 天門으로 튀어 오르고 호랑이가 鳳閣에



도 36 朴彭年, 〈七言律詩〉, 石刻,
25.6×16.3cm, 《觀瀾亭石刻》,
국립중앙도서관

⁶⁶ 明 倪謙, 『倪文僖集』 권24, 「跋李瑑書」, “右朝鮮國王李禎第三子安平君李瑑所書 予嘗使其國所得者也. 夫以三韓遠夷 而能工於筆札如此 于以見文化之無外也. 敬奉內翰錢先生共賞鑒之.”

누워있는 듯하니, 羊欣이나 蕭子雲 이하는 이빨 사이에도 들 수 없을 정도다.”라고 평했다.⁶⁷ 또 그는 예겸, 사미순 兩使가 이용에게 증여한 시첩에 대해 칠언율시 3수를 지어 찬미해주었다.⁶⁸ 그 중 제1수에 조맹부를 능가하는 이용의 명성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박팽년이 이를 小楷로 쓴 필적이 李侯의 《觀瀾亭石刻》에 모각되어 있다³⁶.

글씨 좋아하는 왕자 글씨 배우길 즐기니	好書王子喜臨池
松雪의 풍류도 한 때의 일이 되었지.	松雪風流又一時
아름다운 자질은 꽃을 꽃은 듯 자태가 무진하고	美質插花無盡態
신비한 광채는 해를 쓸 듯 더욱 신기함이 많네.	神光射日更多奇
묘한 솜씨 세상에 적어 오랫동안 흠모했더니	久欽妙手人間少
높은 명성이 과연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네.	果見高名天下知
나에게 鵝溪의 비단 한 필이 있사오니	我有鵝溪一匹絹
젖은 붓으로 흥건히 써주기를 아끼지 마시오 ..	濡毫莫惜掃淋漓

이용 글씨에 대한 16세기의 인식을 전하는 대표적 사례가 있다. 『중종실록』을 보면 1536년 12월 내조한 明 사신 董越이 성종어필을 좋아하여 이를 구하자, 大臣들이 중국인에게 어필을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안평대군이나 崔興孝, 朴耕의 글씨로 대신하자 하였다. 이에 중종은 글씨족자 5폭과 성종어필 병풍 하나를 승정원에 내리며 申公濟에게 살펴보게 했는데, 5폭 중 4폭은 성종 필적임에 틀림없으나 1폭은 “飄逸之氣”로 보아 이용의 글씨인 듯하나 이용 글씨도 아니며 성종 또한 이용 글씨를 모방했으므로 5폭 모두 성종의 필적이라 보고했다. 다음해 1월 중종은 사신들이 구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하는데 이용 글씨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의 글씨는 오래되어 內藏에도 없으니 민간(閭閻)에서 구하면 그것을 구해 표장해주고, 민간에서도 구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글씨로 줄 수도 없으므로 비록 성종어필이라도 줘야 할 것이라 하였다. 그 달 말 중종은 성종어필은 결코 줄 수 없으며 민간에 필시 이용의 족자 글씨가 많으리니 그것을 구해주라 하였다.

이렇듯 장황한 실록기사로 보아 당시 이용 글씨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었을 뿐 아니

67 朴彭年, 『朴先生遺稿』, 「三絕詩序」, “匪懈之書 得王右軍筆法 如龍跳天門 虎臥鳳閣 羊蕭以下 不足置齒牙間也.”

68 朴彭年, 『朴先生遺稿』, 「題倪內翰司馬右史兩天使贈匪懈堂詩帖」.

라 민간 소장도 적지 않았으며 이용 글씨의 특징을 “표일지기”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이 있는 뒤 중종은 이용의 글씨를 준비하여 1537년 3월에 내조한 명 사신 한림원수찬 龔用卿 일행에게 그것을 선사했다. 또 주고 남은 12폭 병풍을 나누어 8폭을 족자로 改粧하여 다음에 오는 정사와 부사에게 각각 4폭씩 주고, 나머지 4폭도 족자로 개장하여 후일의 쓰임에 대비하자고 승정원에 하명한 적이 있다.⁶⁹ 이처럼 이용 필적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어필에 버금갈 정도로 조선을 대표하는 필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조선 후기 18세기 문헌인 찬자미상의 『鶴山閑言』에는 이용이 李白의 五言古詩를 쓴 정부 소유의 큰 병풍에 대해 “豪逸迥麗”한 필치가 마치 나이 먹은 봉황이 九霄(넓은 하늘)를 깔보는듯하다고 평하면서 “안평대군의 體는 松雪이지만 획은 鍾·王이다.”라고 한 金昌協(1651-1708)의 말에 참으로 동의한다는 기록이 있다.⁷⁰ 이는 조선 후기 문사들에게 이용 글씨는 외형적 체격은 조맹부를 따랐으나 획법은 중요·왕희지의 고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이용이 고전적 규범으로서 왕희지 서풍을 근간으로 근대적 유행 서풍으로서 조맹부 서풍을 터득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문인서화가 申緯(1769-1847)의 『警修堂全藁』에는 淸 문인 覃溪 翁方綱(1733-1818)이 신위가 소장한 이용의 필적에 대한 평이 실려 있다.⁷¹

覃溪가 내가 소장한 안평대군의 비단바탕 眞蹟에 대해 말하길 “이는 능히 松雪의 솜씨로 《聖教序》 필의를 운필한 것이다.”고 했는데 정말 정확한 의론이다. 그래서 절구 두 수를 적는다.

궁녀의 고운 살갓에 글씨를 쓰는 운치이니	宮女凝脂落墨勻
호화스런 공자는 스스로 티끌조차 없네.	豪華公子自無塵
유유자적 운필하니 懷仁이 集字한 듯	鷗波腕運懷仁集
사백 년 넘도록 이 같은 사람 없었다네.	曠四百年無此人

石峯은 탕탕한 살집이요 聽松은 筋力인데	石峯撐肉聽松筋
臨戰에서도 安閑하기는 비해당의 군사이라.	臨戰安閑匪懈軍

69 秦弘燮 編, 『韓國美術史資料集成(3)』(一志社, 1991), pp.289-290, 成宗 條.

70 秦弘燮 編, 위의 책, pp.308-309, 『鶴山閑言』 條.

71 申緯, 『警修堂全藁』 책1, 「覃溪又跋余所携安平大君絹本眞蹟曰…」.

百鍊剛으로 부드럽게 손가락을 두른 듯 百鍊剛來柔繞指
 화가 중 또 한 사람 石陽君이 그렇다네. 畫家又一石陽君

즉 이용의 필적에 조맹부의 영향과 함께 왕희지의 필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간파한 옹방강의 논평에 대해 신위도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앞서 1443년작 <비해당집고첩발>(도20) 등 이른 시기의 필적에 왕희지 서풍이 나타나듯이 이용 글씨에 이러한 고법이 깔려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신위는 특히 石峯 韓濩(1453-1605)의 글씨는 탕탕한 살집이 뛰어나고 聽松 成守琛(1493-1564)의 글씨는 근력이 뛰어난 것처럼 이용의 글씨는 마치 싸움에 임하면서도 편안하고 한가로운 듯하다고 극찬하고, 나아가 이러한 이용 글씨의 경지를 墨竹으로 이름난 石陽正 李靈(1541-1626?)의 그것에 비견한 구절이 흥미롭다.

이용의 글씨에 대해 조선 후기 명필 李匡師(1705-1777)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⁷²

우리 조선에 이르러 安平, 自庵(金絿), 蓬萊(楊士彥), 石峯(韓濩)을 四大家로 삼는다. 내가 일찍이 그들의 우열을 白下(尹淳)에게 여쭙었더니 백하는 “봉래가 단지 초서를 잘했지만 역시 진실로 뛰어나다.” 하였다. 내가 뒤에 논정하여 석봉을 조선 제일로 삼았다. 淸之(이용)는 빼어나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재기가 가장 우수하여 마땅히 子昂과 위아래를 다투나, 오직 자양의 필법을 사용하여 속됨을 면하지 못했다. 또 청지가 귀공자로서 이 법을 앞에서 주창하여 일세를 눈부시게 했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임금의 어필이 모두 이 법을 사용하여 마침내 나라의 習俗이 되었다. 근년 이전까지 온 세상에 풍미하여 “右軍·子昂”이라 말하기에 이르렀고 또 “청지가 우군의 획으로 자양체를 사용했다.”고까지 하니 더욱 우습다. 董其昌이 千字가 하나같이 똑같다 하여 자양을 배척했던 것이 당연하다.

이광사의 이러한 평가는 그가 鍾繇·王羲之를 비롯한 魏晉古法에 철저히 하면서 唐 이후의 글씨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용 글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면은 있으나 조맹부 필법만을 썼기 때문에 古法이 적어졌고 이에 “속됨을 면하지 못했다.”라

⁷² 李匡師, 『書訣』 後編, “逮我朝 以安平自庵蓬萊石峯 爲四大家. 余嘗問其優劣於白下 白下曰 蓬萊只長於艸 亦固當勝. 余後來論定 以石峯爲國朝第一. 淸之秀媚可愛 才氣最優 當與子昂相上下 而專用子昂法 未免入俗. 且淸之以貴公子 首唱此法 眩耀一世 由是列朝御筆 皆用此法 遂成國俗. 近年以前 舉世靡然 至謂右軍子昂 又謂淸之以右軍用子昂體 殊爲可笑. 董思白以千字一同斥子昂 當也.”

는 식의 혹평을 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 安平大君 李瑢은 36세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세종·문종 연간의 文藝 方面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 특히 藝術 方面에서 그의 글씨가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뚜렷하다. 그는 고려 말에 들어왔던 조맹부의 松雪體를 비롯한 得古主義 서풍을 깊이 터득하여 元·明代는 물론 조선의 어느 松雪體 서예가도 미칠 수 없는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용의 서예 方面의 성과는 그가 벌였던 文藝活動과 깊이 관련되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것이라 할 수 있다. 佛書를 간행하고 寫經 작업에 참여하는 등 조선 초기 王室佛事에 적극 나섰고, 『唐宋八家詩選』을 비롯하여 중국 여러 名詩人들의 詩選을 편간하고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文士들과 잦은 詩會를 통해 이를 실천하는 등 世宗朝 詩學의 중심에 섰으며, 나아가 중국 역대 書畫를 널리 수집하고 이를 安堅을 비롯한 당대의 화가에게 제공하고 조선시대 법첩의 효시가 된 《匪懈堂集古帖》을 간행하며 《眞草千字文》, 《證道歌》 등의 조맹부 필적을 널리 개간하여 송설체 확산에 기여하는 등 書畫 方面에서 크게 공헌하였다.

이용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문예 方面에서의 활동과 성과로 인해 賜死된 뒤에도 그의 學藝는 지속적으로 찬미되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 조선왕조 전반기 내내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예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成宗을 비롯한 왕실인사의 서풍에 미친 그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다만 명필의 個性을 논함에 있어 이용의 글씨는 아쉬운 감을 떨칠 수 없음은 사실이다. 만약 그가 政變에 희생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생을 누렸다면, 그의 글씨는 보다 뚜렷한 獨自性을 이루었을 것이며, 따라서 후세에 미친 영향도 더욱 커졌을 것이다. 앞으로 안평대군 이용의 서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그의 傳稱作에 대한 상세한 고증작업, 이용의 서풍이 후대에 유행된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__ 李瑢(Yi Yong), 安平大君(Prince An-pyeong), 文藝活動(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書藝(Calligraphy), 書畫收藏(Calligraphy and Painting Collection), 匪懈堂集古帖(Bi-hae-dang jip-go cheop), 趙孟頫(Zhao Mengfu).

■ 투고일 2005년 7월 11일 | 심사일 2005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5년 8월 1일 ■

국문초록

安平大君 李瑢(1418-1453)은 36세의 짧은 생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문종연간의 詩文·書畫·佛事 方面에서 뚜렷한 자취를 많이 남겼다. 그는 이러한 文藝活動 中에서도 특히 元代의 유명한 문인서화가 松雪道人 趙孟頫(1255-1322)의 서풍을 깊이 터득하여 왕성한 서예 활동을 벌였다.

먼저 詩文 方面에서 이용은 1443년 世宗의 명으로 『杜甫詩註』의 편찬을 총괄했고, 1447년에는 여러 문사와 함께 唐宋八家의 시를 골라 『唐宋八家詩選』 10권을 편집·간행하였다. 또 白居易, 梅堯臣, 王安石, 黃庭堅 등의 詩選을 편간하고,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당대의 文士들과 잦은 詩會를 통해 이를 실천하는 등 唐·宋代 詩風을 중심으로 中國詩學을 이끌었다. 더욱이 《瀟湘八景詩帖》, 《夢遊桃源圖卷》 등과 같이 세종연간을 대표하는 詩文書畫가 이루어지는 중심에 바로 그가 있었다.

다음 書畫 方面에서 이용은 신숙주의 「畫記」에 적혀있듯이 중국 서화를 널리 수장하여 당대를 대표하는 서화수장가로서 활동했으며, 이를 安堅을 비롯한 화가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서화계의 리더로 활약하였다. 특히 그가 소장했던 趙孟頫 行書 26점과 鮮于樞 草書 6점은 元代 서풍의 진수를 우리나라에 전파시키는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1443년에는 명나라 왕자 朱有燾이 편간한 《東書堂集古法帖》(1416)을 모방하여 《匪懈堂集古帖》을 출간했다. 이것은 조선시대 법첩의 효시가 되었으며 뒤에 《海東名迹》과 같은 순전한 우리나라 법첩이 간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이용은 조맹부의 필적으로 《眞草千字文》, 《證道歌》를 간행하는 등 法書의 전파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이밖에 그는 궁궐 옆에 불당을 세우고 大慈菴 등의 왕실 원찰을 중심으로 佛書를 간행하며 불상과 사경을 조성하는 등 왕실에서 발원한 여러 佛事에도 앞장을 섰다.

이용은 1453년의 癸酉靖難에 따라 정치적으로 제거되었지만, 이러한 문예활동으로 인해 그의 學藝는 賜死된 뒤에도 계속 찬미되었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실제 조선왕조 전반기 내내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예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成宗을 비롯한 왕실인사에게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王羲之·조맹부를 중심으로 元代 復古主義의 정수를 터득하여 元·明代는 물론이요 조선의 어느 松雪體 서예가도 미칠 수 없는 높은 기량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서예 方面에서의 성과는 그의 문예활동과 연계되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예가의 개성을 논할 때 이용의 글씨에서 아쉬운 감을 떨칠 수 없다. 만약 그가 정변에 희생되지 않고 보편적 생을 누렸다면, 그의 글씨는 보다 뚜렷한 독자성을 보였을 것이며, 후세에 미

친 영향의 폭도 더욱 넓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용의 서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특히 그의 전칭작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그의 서풍이 유행된 양상에 관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iterary & Artistic Activities of Prince Anpyeong Yi Yong and His Calligraphy

Yi Wanwoo

This paper discusses the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of Prince Anpyeong (安平大君) Yi Yong (李瑢 1418–53) and his calligraphy. He was born as the third son between King Sejong (世宗大王) and Queen Soheon (昭憲王后). In spite of his short lifetime, he contributed distinctly to the field of poetry, calligraphy, painting, and Buddhist undertakings under the reign of Sejong and Munjong (文宗). Especially he acquired Zhao Mengfu (趙孟頫 1254–1322)'s calligraphy style and executed a energetic activity in brush-writings.

Firstly, in the poetry field he managed the footnoting of Du Fu(杜甫)'s poems in 1443 by Sejong's order. In 1447 he also selected and compiled 10 volumes of *Dang-song pal-ga si-seon* (唐宋八家詩選 : Selection of Poems by Eight Great Poets of Tang & Song Dynasties) with several literati scholars. And he also selected and published anthologies of Bai Ju-yi (白居易), Mei Yaochen (梅堯臣), Wang Anshi (王安石), and Huang Tingjian (黃庭堅). He arranged frequently elegant gatherings and composed poems with young scholars of the Jip-hyeon Academy (集賢殿), so he played a leading role in pursuing the poetical style of Tang & Song periods. In addition, he always was on the middle of producing several representative works of the early Joseon period like as *the Album of Eight Views on the Xiao & Xiang Rivers* (瀟湘八景詩帖) and *the Scroll of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夢遊桃源圖卷), in which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were put together.

Secondly, in the art field he was a zealous collector just as written in “*Record on Yi Yong’s Painting Collection*” (畫記) by Shin Sukju (申叔舟). He collected many Chinese calligraphy and painting works, and provided them to many contemporaries including a famous court-painter An Gyeon (安堅). Eventually his collection was served as an impetus to draw up painting-level, and in special the 26 running-script works by Zhao Mengfu and 6 grass-script works by Xianyu Shu (鮮于樞) must become a main spring to spread Yuan calligraphy style.

In 1443, he compiled and published a *fa-tie* (法帖 : selected ink rubbings of model calligraphies) named *Bi-hae-dang jip-go cheop* (匪懈堂集古帖) that copied partly from *Dong-shu-tang ji-gu fa-tie* (東書堂集古法帖) edited by the Ming prince Zhou You dun (朱有燾) in 1416 and added newly several works of Zhao Mengfu and Kim Saeng (金生), an ancient Korean calligrapher. It was the first in Joseon period and was served as a model to later ink rubbings such as *Hae-dong myeong-jeok* (海東名迹). Furthermore, he was aggressive in publishing calligraphy texts, for instance *Thousand-Character Essay in Regular and Cursive Script* (眞草千字文) and *Eulogy for Awakening by Priest Yong-jia* (證道歌) written by Zhao Mengfu.

On the other hand, he took an active interest in Buddhist undertakings offered by the royal family. Therefore he participated frequently as a supervisor in making Buddhist images and publishing Buddhist sutras, and transcribed many Buddhist sutras for himself.

Although Yi Yong was defeated politically by “Suppression of *coup d’état* in 1453” (癸酉靖難), his literary and artistic accomplishments have been praised continually even after his death, and he had a far-reaching influence on the later generations. Actually in the first half of Joseon period, it is almost possible to say that there are no calligrapher not to be affected by his style, in particular the loyal members such as King Seong-jong (成宗). Yi acquired the essence of Zhao Mengfu’s style and achieved an incomparable level to any calligrapher of Joseon period who followed Zhao’s style, not to mention any calligrapher of Yuan and Ming periods. From this point, I would like to say that his achievements in calligraphy had a synergy effect with his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However evaluating one’s individuality, I could not shake away a feel of insufficiency on his calligraphy. If he had not been sacrificed by political change and had led an ordinary

life, his style would have more apparent characteristics and his influence on the next generations would be wider. In forth, it will be followed to deep discussions on Yi Yong and minute analysis on many works attributed to him, and the popularization of his calligraphy style.